

마르크스의 剩餘價値論*

林 元 澤**

<目 次> I. Marx의 價値論 II. Marx의 剩餘價値論 III. Marx의 國際價値論
--

I. Marx의 價値論

1. 價値論은 體系的 理論經濟學에 있어서의 terminus a quo[出發點]을 形成한다. Bucharin (1926, p. 35)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價値의 問題는 經濟學이 發生한 後 오늘에 이르기까지 經濟學의 基本問題에 속하고 있다. 其他 모든 問題, 이를테면 賃金·資本·地代·資本蓄積·大企業과 小企業과의 軋轢·恐慌 等に 관한 問題는 直接間接으로 이 基本問題에 歸着되게 된다.」[林元澤(1982, 19項)] 그리고 J.S. Mill(1920, p. 439)도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政治經濟學에 있어서의 最大誤謬는 가장 自明한 眞理를 無視하는 일이다(In political economy the greatest errors arise from overlooking the most obvious truths).」 그런데 이 J.S. Mill의 말을 다음과 같이 고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政治經濟學에 있어서의 最大誤謬는 잘못된 價値論을 採擇하는 것이다」라고. 사실 過去 200年間의 經濟學의 歷史는 理論經濟學이 잘못된 價値論을 採擇했기 때문에 莫大한 被害를 입고 있다는 如實한 事實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關說하려고 하는 Marx의 價値論의 誤謬도 그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理論展開의 必要上 먼저 價値論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부터 說明해 놓기로 하자.

2. 價値論이란, 端的으로 말하면, 交換法則, 特히 物物交換 $W-W'$ 에 있어서의 交換法則에 관한 理論을 意味한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物物交換 $W-W'$ 以外에 있어서도, 즉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서도, 그리고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left\langle \frac{P}{A} \dots P \dots W' \right\rangle -G'$ 에 있어서도, 그 過程을 支配하는 交換法則이 存在하고 있다. 그러나 單純商品生産

* 本論文은 精神文化研究院의 研究費에 의해서 作成된 것임.
 ** 서울大學校 名譽教授.

$W-G-W'$ 과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left\langle\frac{P}{A}^m \dots P \dots W'-G'\right\rangle$ 에 있어 支配하는 交換法則에 관한 理論은 價値論이라고 하지 않고 보통 價格理論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通例에 따라서 上記의 用語法을 使用하기로 한다. 그러나 物物交換 $W-W'$ 에 있어 支配하는 交換法則에 관한 理論 즉 價値論(相對價格決定理論)이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 支配하는 前資本主義的 絕對價格決定理論과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left\langle\frac{P}{A}^m \dots P \dots W'-G'\right\rangle$ 에 있어 支配하는 資本主義的 絕對價格決定理論의 基礎가 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면 物物交換 $W-W'$ 에 있어 支配하는 交換法則에 관한 問題는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기로 하자.

物物交換 $W-W'$ 에 있어 問題가 되는 것은

- ① 交換의 基準이 되는 것은 무엇이며,
- ② 交換比率(相對價格)은 어떻게 해서 決定되며,
- ③ 人間 對 人間의 關係에 있어서의 利得損失은 어떻게 되느냐

의 3個로 要約된다고 할 수 있다[林元澤 (1982, 71項)].

3. 그런데 앞으로 Marx의 價値論을 超越的·內在的 批判을 하기 위해서 若干의 그러나 대단히 重要的 理論的 作業 즉 體系的 理論經濟學에 있어서의 terminus a quo[出發點]은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우리의 見解를 미리 밝혀 두기로 하자.

우리는 이것을 財貨=使用價値라고 해두기로 한다. Marx는 物質로서의 財貨=使用價値의 生成過程을 다음과 같이 分析하고 있다.

$$\text{勞動對象} \times \text{勞動手段} \times \text{勞動} = \text{使用價値}$$

上記의 Marx의 規定이 그의 方法論인 唯物論에 立脚하고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으나, 그것이 올바른 規定인 以上 우리는 Marx의 上記規定을 그대로 받아들여 두기로 하자.

그런데 人間은 物質的·生理的 存在인 同時에 또 心理的 存在이기도 하다. Engels(1927, p. 31)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우리 自身이 속해 있는 物質的인 感性的으로 知覺되는 世界가 唯一한 實在(einzig Wirkliche)이며, 人間의 意識(Bewußtsein)과 思惟(Denken)는 超官能의 것으로 보여도, 物質的·生理的 器官 즉 腦髓의 產物(das Erzeugnis eines stofflichen, körperlichen Organs, des Gehirns)이며, 物質이 精神의 產物이 아니며, 精神 그 自體가 物質의 最高產物에 지나지 않는다(Die Materie ist nicht ein Erzeugnis des Geistes, sondern der Geist ist selbst nur das höchste Produkt der Materie).」이 Engels의 말은 옳은 말이다. 누가 이 말을 敢히 反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Engels(1927, p. 29)는 人間 意識의 「世界認識의 可能性」(die Möglichkeit einer Erkenntnis der Welt)도 認定하고, Kant

式的「物自體」와 「人間認識」의 對立性 乃至는 矛盾性을 克服하고, 換言하면 Kant式的 構成說을 排擊하고, 模寫說을 主張하고 있다.

4. Lenin(1927, pp.95-6, 120)도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唯物論的 理論은 思想에 의한 對象의 模寫의 理論(die Theorie von der Abbildung der Gegenstände durch den Gedanken)이다. 物質은 우리들의 外部에 있다. 우리들의 知覺과 表象은 物質의 模寫이다 (Unsere Wahrnehmungen und Vorstellung sind ihre Abbilder).」 「唯物論者라는 것은 우리들의 感覺器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客觀的 眞理(die objektive Wahrheit, die uns durch die Sinnesorgane zwinglich wird)를 認定하는 것이다. 客觀的인 즉 人間 및 人類로부터 獨立된 眞理(die objektive, d.h. von dem Menschen und der Menschheit unabhängige Wahrheit)를 認定하는 것은 絕對的 眞理(die absolute Wahrheit)를 認定하는 것이다.」(傍點筆者) 그런데 Lenin(1927, p.121)은 또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思考의 至上權은 極히 많은 非至上的인 思考를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實現된다(die Souveränität des Denkens verwirklicht sich in einer Reihe höchst unsouverän denkbar Menschen). 眞理에 대해서 無條件의 要求를 갖는 認識은 많은 相對的 誤謬 속에서 實現된다. 이 두 가지는 다 같이 人類的 無限의 永續을 통해서만 완전히 實現될 수 있다(die Erkenntnis, welche unbedingten Anspruch auf Wahrheit hat, in einer Reihe von relativen Irrtümern; weder die eine noch die andere kann anders als durch eine unendliche Lebensdauer der Menschheit vollständig verwirklicht werden).」

즉 「絕對的 眞理」는 「相對的 眞理」의 蓄積 속에서 實現된다는 말이다. 이 Lenin의 叡智의 말도 우리는 남김없이 받아들이기로 하자. 다음의 Lenin(1927, p.121)의 發言도 哲學思想史에 永久히 남을 수 있는 價値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必然的으로 絕對的인 것으로 생각되는 人間思考의 特色과 極히 制限的으로 思考하는 各個人의 경우에 있어서의 그 現實性과의 사이의 矛盾은 無限의 過程에 있어(im unendlichen Progreß) 人間歷史의 끝없는 實踐過程에 있어 (praktisch endlosen Aufeinanderfolge der Menschengeschlechter) 解決하게 된다. 人間의 思考는 至上的인 同時에 至上的이 아니다(das menschlichen Denken ist ebensosehr souverän wie nicht souverän). 人間의 認識能力은 無制約的인 면서도 制約的이다(seine Erkenntnisfähigkeit ist ebensosehr unbeschränkt wie beschränkt).」

Engels • Lenin은 여기서 唯物論的 認識論을 展開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眞理는 認識可能하며, 全體的 眞理(「絕對的 眞理」)는 部分的 眞理(「相對的 眞理」)의 蓄積 • 合計로써 이루어진다는 理論이다. Hegel은 全體的 眞理(「絕對的 眞理」)를 「具體的」(das Konkrete) •

「被媒介的」(das Vermittelte) 眞理라고 했고, 部分的 眞理(「相對的 眞理」)를 「抽象的」(das Abstrakte)・「直接的」(das Unmittelbare) 眞理라고 했으며, 「抽象的」・「直接的」眞理는 그와 同資格의 其他「抽象的」・「直接的」眞理와 相互媒介됨으로써 즉 「正」(These) 플러스 「反」(Antithese)에 의해서 「合」(Synthese) 즉 「具體的」・「被媒介的」眞理로 「止揚」(Aufheben) 된다는 節次를 辯證法이라고 했는데, Lenin의 「相對的 眞理」・「絕對的 眞理」에 관한 理論은 바로 Hegel의 辯證法에 관한 理論의 再版이라고 생각되므로, Lenin의 「相對的 眞理」・「絕對的 眞理」에 관한 理論도 우리는 繼承하기로 한다.

5. 그러나 Marx・Engels・Lenin은 다만 唯物論者임을 固守하려고만 든다. 「精神」을 「物質의 最高產物」로서만 規定짓고 (이 事項도 우리는 認定하기로 한다), 「物質」과 「精神」을, 또는 「生理」와 「心理」를 相互媒介시키려고는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좀더 具體的으로 말하면, 「精神」도 固有의 心理的 法則을 갖고 있으며, 그 法則이 物理的・生理的 人間이 갖고 있는 物理的・生理的 法則과 協同作業을 하고 있다는 것을 積極的으로 是認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Marx・Engels 보다 歷史的인 先行者 J.S. Mill(1930, p. 555)은 「生理的 法則」과 共存하고 있는 「心理的 法則」을 다음과 같이 明示的으로 規定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精神狀態가 精神狀態에 의해서 發生될 때 나는 그것을 心理的 法則(a law of mind)이라고 부르고, 精神狀態가 直接的으로 生理狀態에 의해서 發生될 때에는 그것은 生理的 法則(a law of body)이며, 그것은 自然科學(physical science)에 속한다.」 즉 J.S. Mill에 의하면 食欲・衣服에 대한 欲求 즉 使用價値에 대한 欲求是 「生理的 法則」에 속하지만, 이를테면 Adam Smith의 「利己心」(self-love, self-interest) 또는 「極大化」・「極小化」를 意圖하는 欲求是 「心理的 法則」에 속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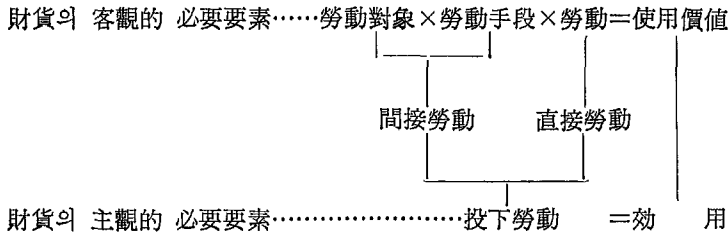
또 J.S. Mill(1930, p. 572)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모든 社會現象은 人間性的인 現象이다(all phenomena of society are phenomena of human nature). 人間の 思考・感情・行動의 現象이 一定의 法則에 順從하고 있다고 한다면, 社會現象도 그 法則에서 派生되는 一定의 法則에 順從하지 않으면 안된다.」[林元澤(1982, 29項)]

우리는 心理學을 「基礎學」(Grundwissenschaft)으로 삼아서 社會現象을 說明하려고 하는 이러한 所謂 「方法論的 一元論」(der methodologische Monismus) 또는 「心理主義」(Psychologismus)의 立場도 絶對로 無視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리하여 우리의 立場은 生理的 法則을 主張하는 Marx의 唯物論과 心理的 法則을 主張하는 方法論的 一元論・心理主義를, 즉 「抽象的」・「直接的」眞理(Lenin의 用語를 빌어 表現

하면 2個의 「相對的 眞理」를, 相互媒介하는 「具體的」·「被媒介的」眞理 즉 「絶對的 眞理」를 追求하는 立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6. Marx가 提示해 놓은 物理的·生理的 法則에다가 心理的 法則을 附加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우리는 Marx가 提示해 놓은

$$\text{勞動對象} \times \text{勞動手段} \times \text{勞動} \longrightarrow \text{使用價值}$$

의 物理的·生理的 系列을 財貨의 客觀的 必要要素라고 부르기로 하고, 그 物理的·生理的 系列을 方法論的 一元論·心理主義에 立脚해서 轉換 또는 翻譯해 놓은

$$\text{投下勞動} \longrightarrow \text{效用}$$

의 心理的 系列을 財貨의 主觀的 必要要素라고 呼稱해 두기로 한다.

7. 財貨의 客觀的 必要要素인 勞動對象·勞動手段·勞動은 方法論的 一元論·心理主義에 의해서 翻譯하면, 「苦痛」인 「投下勞動」이라는 財貨의 主觀的 必要要素로 轉換된다. Adam Smith(體系的 理論經濟學에 方法論的 一元論·心理主義를 導入해 놓은 最初의 사람)는 勞動을 toil and trouble이라고 規定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使用價値를 方法論的 一元論·心理主義에 의해서 翻譯하면 「效用」이 된다. 理論經濟學에 明示的으로 方法論的 一元論·心理主義를 導入한 사람은 Jevons였다고 할 수 있다. Jevons(1911, p. 32)는 經濟行動을 「快樂과 苦痛의 計算」(calculus of pleasure and pain)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다[林元澤(1982, 55項)]. 여기서 「快樂」은 「效用」을 意味하고, 「苦痛」은 「投下勞動」을 意味하고 있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뿐만 아니라 Jevons(1911, 97 p. 27)는 經濟現象에 適用되는 心理的 法則으로서 「極大化」·「極小化」傾向이 存在하고 있다고 하며, 「效用極大化」(maximising of utility) 「最小의 勞動費用」(the least cost of labour)이라는 用語까지 쓰고 있다[林元澤(1982, 84項)].

8. 이리하여 Marx의 唯物論에 立脚한

$$\text{勞動對象} \times \text{勞動手段} \times \text{勞動} \longrightarrow \text{使用價值}$$

의 「因果系列」은 2個의 「根元的 必然」인

投下勞動→効用

의 「手段・目的系列」로 轉換된다[林元澤(1982, 30項)].

그런데 또 여기에 꼭 貫通해야 할 2個의 關門이 있다. ① 物理적으로 存在하는 것은 Marx의 所謂「具體的 有用勞動」뿐인데, 이 서로 比較될 수 없는 異質的인 「具體的 有用勞動」을 어떻게 서로 比較하고 合計할 것인가가 그 첫째이다. 그런데 이 問題를 完全無缺하게 解決한 사람이 다름아닌 바로 Marx였다고 할 수 있다. Marx는 質적으로 比較・合計할 수 없는 「具體的 有用勞動」을 서로 比較・合計할 수 있는 「同一單位」의 「抽象的 人間勞動」으로 「換算」(Reduktion)할 수 있다는 것을 主張했다. 이것은 확실히 Marx의 偉대한 功獻의 하나가 된다는 것을 솔직히 認定하고, 우리는 이 「抽象的 人間勞動」이라는 概念도 우리의 理論體系 속에 받아 들이기로 한다. 그리하여 「投下勞動」이라는 것도, 勞動對象・勞動手段 속에 凝結되고 있는 異質的인 「具體的 有用勞動」을 「抽象的 人間勞動」으로 「換算」한 것을 合計한 間接勞動과 「具體的 有用勞動」인 勞動을 역시 「抽象的 人間勞動」으로 「換算」한 直接勞動을 合計한 것에 다름이 없다.

② 다음에 問題가 되는 것은 「手段必然」인 投下勞動과 「目的必然」인 効用을 어떻게 比較하느냐 하는 것 또는 効用은 어떻게 測定되어야 하는가 하는 効用의 測定에 관한 問題라고 할 수 있다.

이 問題에 대한 우리의 解決方法은 다음과 같다. ㉑ 効用(目的必然)은 그 唯一의 手段必然인 投下勞動(抽象的 人間勞動)에 의해서 表示된)에 의해서만 測定・表示되어야 하며, ㉒ 効用은 그것을 獲得하기 위해서 投下를 不辭하는 最大勞動量에 의해서 測定・表示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抽象的 人間勞動에 의해 測定・表示된 効用을 우리는 「効用勞動量」이라고 呼稱해 둔 바 있다[林元澤(1982, 34 項)].

그러면 다음과 같은 經濟剩餘에 관한 定式이 成立될 수 있을 것이다.

$$\text{經濟剩餘} = \text{効用勞動量(快樂)} - \text{投下勞動量(苦痛)}$$

經濟剩餘는 두말할 것도 없이 目的必然과 手段必然의 差額을 나타내고 있다. 人間の 經濟行動은 2個의 「根元的 必然」 効用=効用勞動量(目的必然)과 投下勞動量(手段必然)의 差額 즉 經濟剩餘가 正值를 表示할 때에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林元澤(1982, 55 項)].

9. 2個의 「根元的 必然」이 交換에 있어서도 그대로 貫徹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왜냐하면 2個의 「根元的 必然」은 經濟現象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支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2個의 「根元的 必然」은 다음과 같은 形態로서 交換過程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交換法則 I : 交換의 基準이 되는 것은 效用과 投下勞動이며, 따라서 交換은 效用勞動二元基準交換이 된다.

交換法則 II : 交換比率(物物交換 $W-W'$ 에 있어서는 相對價格)은 經濟剩餘가 交換에 있어 現象되는 交換剩餘가 極大化되는 點에서 즉 需要量과 供給量이 一致되는 點에서 決定되게 된다.

交換法則 III : 交換法則 I 과 交換法則 II 에 따라서 交換이 이루어지면, 그 事後的 結果로서 支配勞動量交換·不等價交換이 이루어지게 된다. 但 物物交換 $W-W'$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서는 不等價交換이 事後的 結果로서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해서,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left\langle \frac{P}{A} \dots P \dots W'-G' \right\rangle$ 에 있어서는 不等價交換이 事前的 動機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10. 以上에 提示해 놓은 3個의 交換法則에 立脚해서 우선 Marx의 價值論總體를 批判해 보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① Marx는 交換되는 財貨 즉 商品의 2個 要素로서 「使用價值」와 「價值」 즉 「投下勞動」을 들고 있다. 이것은 方法論의 一元論·心理主義를 排擊하고 唯物論만을 取하고 있는 Marx가 범하지 않을 수 없었던 誤謬라고 할 수 있다. 前記한 바와 같이 「使用價值」에 對應하는 것은 「勞動對象·勞動手段·勞動(具體的 有用勞動)」이며, 決코 「投下勞動(抽象的 人間勞動에 의해서 表示된)」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한편 「投下勞動」 즉 「價值」에 對應하는 것은 「效用」이며 決코 「使用價值」가 아닌 것이다. 이리하여 Marx의 『資本論』은 出發點에 있어 重大 誤謬를 범했다고 할 수 있다.

② Marx는 交換基準이 되는 것은 「投下勞動」뿐이며, 交換過程에 있어서는, 「1原子의 使用價值도 作用하지 않는다」는 「勞動一元基準交換」理論을 展開함으로써 「效用勞動二元基準交換」理論의 不完全形態를 示顯하고 있다. 즉 「使用價値의 捨象」(Abstraktion von ihren Gebrauchswerten)을 내걸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Böhm-Bawerk가 一大攻擊을 加하고, 「特殊한 樣相」으로서의 使用價値는 交換過程에 있어 捨象될 수 있을지 모르나, 「使用價値一般」(Gebrauchswert überhaupt) 즉 「效用」은 捨象될 수 없다고 한 것은 너무도 有名한 事實이다[林元澤(1982, 86項)].

③ 그리고 上記한 바와 같이 「抽象的 人間勞動」은 物的 對象인 勞動對象·勞動手段·勞動(具體的 有用勞動)으로부터 心理主義的 節次에 의해서만 誘導될 수 있는데, 唯物論者인 Marx에게는 그러한 節次가 전혀 窺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Marx는 다짜고짜로 「어떤 使用價値의 價値의 크기는 ... 하나의 使用價値의 製造에 社會的으로 必要한 勞動時間」

(gesellschaftlich notwendige Arbeitszeit)이라고만 우겨대고 있는 것이다[林元澤(1982, 96項)]. 「社會的 必要勞動時間」이라는 概念도 우습기 짝이 없는 概念이지만, 善意로 이것을 「投下勞動」이라고 看做한다면, 이러한 Marx의 理論展開方法은, 젊었을 때 Hegel을 공부했던 Hegel의 弟子로서의 Marx가 絶대로 忌避해야 할 「無媒介의인」(Hegel이 가장 輕蔑했던 理論展開方法)이라는 것이다.

11. 우리는 우선 物物交換 $W-W'$ 에 있어서의 効用勞動二元基準交換理論을 展開해 놓고 보기로 하자.

지금 1人 對 1人的 物物交換에 있어, W 商品의 所有者를 A , W' 商品의 所有者를 B 라고 하고, W 商品의 x 量(xW)과 W' 商品의 y 量(yW')이 交換이 되었다고 한다. xW 의 全部投下勞動量을 $L(xW)$, yW' 의 全部投下勞動量을 $L(yW')$, A 의 xW , yW' 에 대한 全部効用을 $U_A(xW)$, $U_A(yW')$, B 의 xW , yW' 에 대한 全部効用을 $U_B(xW)$, $U_B(yW')$ 라고 하고, $xW-yW'$ 의 物物交換이 行해졌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關係가 成立될 수 있을 것이다.

$$\left. \begin{array}{l} U_A(yW') > L(xW) \\ U_A(yW') > U_A(xW) \\ U_B(xW) > L(yW') \\ U_B(xW) > U_B(yW') \end{array} \right\} \dots\dots\dots(1)$$

上記不等式 (1)이 意味하고 있는 것은, A, B 各者が 交換을 통해서 獲得하는 $U_A(yW')$, $U_B(xW)$ 가 그 全部投下勞動量(實質費用) $L(xW)$, $L(yW')$ 보다 커야 되는 同時에, 또 그가 所有하고 있다가 交換에서 提供喪失되는 効用(代替費用) $U_A(xW)$, $U_B(yW')$ 보다 커야 단 交換剩餘가 正值를 取하게 됨으로써 $xW-yW'$ 이 行해진다는 物物交換 $W-W'$ 이 成立되기 위한 必要且充分條件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U_A(yW')$, $U_A(xW)$, $U_B(xW)$, $U_B(yW')$ 는 全部効用量 $L_A(yW')$, $L_A(xW)$, $L_B(xW)$, $L_B(yW')$ 으로써 表示될 수 있으므로 不等式 (1)은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쓸 수가 있다.

$$\left. \begin{array}{l} L_A(yW') > L(xW) \\ L_A(yW') > L_A(xW) \\ L_B(xW) > L(yW') \\ L_B(xW) > L_B(yW') \end{array} \right\} \dots\dots\dots(2)$$

그런데 不等式 (2)의 各項은 A, B 의 交換當事者が 物物交換 $W-W'$ 을 통해서 獲得하는 交換剩餘를 勞動量으로써 表示하고 있으며, 그리고 $L(xW)$, $L(yW')$ 는 勞動費用(實質費用)

을 $L_A(xW)$, $L_B(yW')$ 는 代替費用(犧牲되는 效用)을 表示하고 있다.

그런데 不等式 (2)에 있어

$$L_A(xW) > L(xW)$$

$$L_B(yW') > L(yW')$$

가 成立된다. 만약 이 關係가 成立되지 않으면 A는 xW 를 B는 yW' 를 生産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生産者가 同時에 消費者도 되고 있다는 前提가 있다.

따라서 不等式 (2)는 다음과 같이 된다.

$$\left. \begin{aligned} L_A(yW') > L_A(xW) \\ L_B(xW) > L_B(yW') \end{aligned} \right\} \dots\dots\dots (3)$$

不等式 (3)은 Walras · Wicksell · Jevons의 效用一元基準交換理論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Walras · Wicksell · Jevons의 效用一元基準交換理論 = 限界效用價值論은 效用勞動二元基準交換理論이 物物交換 $W-W'$ 에 있어 適用될 때의 交換理論이라는 것이 說明되었다고 할 수 있다[林元澤(1982, 115項)].

12. 1人 對 1人的 關係를 多數 對 多數의 關係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left. \begin{aligned} L_{A1}(y_1W') > L_{A1}(x_1W) \quad L_{B1}(x_1'W) > L_{B1}(y_1'W') \\ L_{A2}(y_2W') > L_{A2}(x_2W) \quad L_{B2}(x_2'W) > L_{B2}(y_2'W') \\ L_{Am}(y_mW') > L_{Am}(x_mW) \quad L_{Bn}(x_n'W) > L_{Bn}(y_n'W') \end{aligned} \right\} \dots\dots\dots (4)$$

不等式 (4)에 있어 A_1, A_2, \dots, A_m 는 W 商品의 供給者 W' 商品의 需要者를, B_1, B_2, \dots, B_n 는 W' 商品의 供給者 W 商品의 需要者를 各各 表示하고 있다고 한다.

또 다음과 같은 關係도 成立할 수 있을 것이다.

$$\frac{y_1}{x_1} = \frac{y_2}{x_2} = \dots = \frac{y_m}{x_m} = P = \frac{y_1'}{x_1'} = \frac{y_2'}{x_2'} = \dots = \frac{y_n'}{x_n'} \dots\dots\dots (5)$$

$$x_1 + x_2 + \dots + x_m = x_1' + x_2' + \dots + x_n' \dots\dots\dots (6)$$

$$y_1 + y_2 + \dots + y_m = y_1' + y_2' + \dots + y_n' \dots\dots\dots (7)$$

그런데 (4), (5), (6), (7)과 同一의 內容을 갖는 方程式을 Wicksell은 다음과 같이 誘導해 내고 있다.

$$\left. \begin{aligned} \frac{F_1(a_1 - x_1)}{f_1(y_1)} = \frac{y_1}{x_1} = P & \quad \frac{F_1(x_1')}{f_1(b_1 - y_1')} = \frac{y_1'}{x_1'} = P \\ \frac{F_2(a_2 - x_2)}{f_2(y_2)} = \frac{y_2}{x_2} = P & \quad \frac{F_2(x_2')}{f_2(b_2 - y_2')} = \frac{y_2'}{x_2'} = P \\ \dots\dots\dots & \quad \dots\dots\dots \end{aligned} \right\} \dots\dots\dots (8)$$

$$\left. \begin{aligned} \frac{F_m(a_m - x_m)}{f_m(y_m)} = \frac{y_m}{x_m} = P & \quad \frac{F_n(x_n')}{f_n(b_n - y_n')} = \frac{y_n'}{x_n'} = P \end{aligned} \right\}$$

a_1, a_2, \dots, a_m 은 A商品의 各所有者의 所有量을, b_1, b_2, \dots, b_n 은 B商品의 各所有者의 所有量을, $x_1, x_2, \dots, x_m \cdot y_1, y_2, \dots, y_m$ 은 A商品의 各所有者의 交換에 있어 授受되는 A, B의 數量을, $x_1', x_2', \dots, x_n' \cdot y_1', y_2', \dots, y_n'$ 은 B商品의 各所有者의 交換에 있어 授受되는 A, B의 數量을, $F_1(a_1 - x_1), F_2(a_2 - x_2), \dots, F_m(a_m - x_m) \cdot f_1(y_1), f_2(y_2), \dots, f_m(y_m)$ 은 A商品의 各所有者의 A, B에 대한 限界効用을, $F_1(x_1'), F_2(x_2'), \dots, F_n(x_n') \cdot f_1(b_1 - y_1'), f_2(b_2 - y_2'), \dots, f_n(b_n - y_n')$ 은 B商品의 各所有者의 A, B에 대한 限界効用을 表示하고 있다고 한다[林元澤(1982, 81項)].

그리하여 方程式 (8)과 方程式 (6) 또는 (7)은 方程式의 數와 未知數의 數가 一致되므로 相對價格은 誘導될 수가 있게끔 되고 있다. 여기서는 Walras·Jevons의 相對價決定理論은 省略하기로 하지만[林元澤, (1982, 74·81項)], Walras·Jevons·Wicksell의 諸理論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交換法則 I과 交換法則 II가 適用되고 있다는 것만을 指摘해 두면 足하다.

그런데 Walras·Jevons·Wicksell의 諸理論의 展開는 여기서 그치고, 交換法則 III에까지는 進入하지 못하고 있다[林元澤(1982, 第2章)].

Wicksell理論의 (8), (6) 또는 (7)은 우리의 (4)(5)(6) 또는 (7)에다가 「極大化」原理를 附加한 것이므로 同一內容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不等式 (4)는 다음과 같은 不等式 (9)로 바꾸어 쓸 수가 있을 것이다.

$$\left. \begin{aligned} L(y_1 W') \geq L(x_1 W) & \quad L(x_1' W) \geq L(y_1' W') \\ L(y_2 W') \geq L(x_2 W) & \quad L(x_2' W) \geq L(y_2' W') \\ \dots\dots\dots & \quad \dots\dots\dots \\ L(y_m W') \geq L(x_m W) & \quad L(x_m' W) \geq L(y_m' W') \end{aligned} \right\} \quad (9)$$

그러면 不等式 (4)와 不等式 (9)는 어떻게 다르다는 말인가. 不等式 (4)는 交換의 事前的 動機인 交換剩餘가 正值라는 것을 表示하고 있는 데 대해서, 不等式 (9)는 交換의 事後的 結果로서 一般의으로 交換法則 III 支配勞動量交換·不等價交換이 成立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不等式 (4)와 不等式 (9)가 一致되고 있다는 것은 限界効用價值論과 支配勞動價值論이 一致되고 있다는 것을 表示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物物交換 $W - W'$ 에 있어 무척 갖고 싶어서 交換을 해 보니 自己에게 不利한 不等價 交換이 되더라는 것이다. 여기에 있어 「人間 對 人間の 關係에 있어서의 利得損失」의 問題가 發生되는 것이다. 다음에는 이 問題를 考察해 보기로 하자.

13. 自己에게 不利한 不等價交換이 發生될 경우, ① 그래도 交換을 하느냐 또는 ② 交換

을 中止하느냐의 어느 한 가지를 交換當事者는 選擇하게 될 것이다.

① 不利한 不等價交換인 줄 알면서도 交換을 할 때는 어떠한 경우인가를 알아보기로 하자. ② 技術的 分業과 社會的 分業이 상당히 發展되고 있어, ③ 長時間에 걸쳐서 習得한 複雜高級勞動과 ④ 長時間에 걸쳐서 精巧하게 만들어진 勞動手段에 의해서 生産物이 만들어질 경우, 그리고 그 交換剩餘가 正值를 나타낼 경우, 즉 「勞動의 即刻的인 自由移動」이 行하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不利한 不等價交換임을 甘受하면서 交換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② 이에 反해서, ③ 技術的 分業·社會的 分業이 되지 않고 있는 狀態에 있어, 즉 모든 사람이 모든 生産物을 直接 生産해 낼 수 있는 物物交換 $W-W'$ 의 初期段階에 있어서는 ④ 따라서 複雜高級勞動이 存在하지 않고 單純勞動만이 存在하며, ⑤ 勞動手段과 加工原料를 使用하지 않고 自然素材만으로써 生産物이 만들어질 때에는, 不利한 不等價交換이 行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不利한 不等價交換이 行해지려고 할 때에는, 即刻 交換을 中止하고 自己가 交換을 통해서 獲得하고자 하는 使用價值를 自家生産하던 되기 때문이다. 즉 「勞動의 即刻的인 自由移動」이 行해지기 때문이다.

14. 그러면 以上の 우리의 立場에서 Marx의 所謂 「價值法則」=等價交換의 法則을 檢討해 보기로 하자. Marx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交換은 均等性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으며, 均等性은 公約性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林元澤(1982, 87項)] 즉 Marx에 의하면 交換은 항상 必然的인 等價交換이라야 된다는 것이다. 또 Marx는 다음과 같은 말도 하고 있다. 「交換은 그 性質上 平等契約」이라고[林元澤(1982, 107項)]. 즉 交換當事者는 不等價交換이 行해지게 될 경우에는 交換을 中止하고 만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分明히 그리고 斷乎히 말해 두거니와, 이 Marx의 「價值法則」=等價交換의 法則은 ② 技術的 分業·社會的 分業이 發達되지 않았던 物物交換 $W-W'$ 의 初期段階 ③ 精巧한 生産手段이 使用되지 않고 自然素材만으로써 生産이 行해지게 되고 ④ 그 習得에 長時間을 必要로 하는 複雜高級勞動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모든 生産物을 生産할 수 있는 單純勞動만이 支配할 段階에 있어서만 妥當性을 갖는다는 것이다. Marx 經濟學의 基本命題인 「價值法則」=等價交換의 法則은 物物交換 $W-W'$ 의 初期段階에 있어서만 適用될 수 있는 基盤을 갖고 있으며, 物物交換 $W-W'$ 의 後期段階 즉 ② 技術的 分業·社會的 分業이 發達되고 ③ 長時間에 걸쳐서 獨特한 技術로 만들어진 高級勞動手段·勞動對象과 ④ 그 習得에 長時間 걸리는 複雜高級勞動에 의해서 生産物이 生産될 때, 즉 「勞動이 即刻的인 自由移動」이 不可能한 段階以後에 있어서만 適用될 수 없다는 것이다[林元澤(1982, 105-7項)].

15. 投下勞動價值論에도 몇 개의 種類가 있는데 (Ricardo·J.S. Mill은 「最大」投下勞動價值

論을 取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 Marx의 投下勞動價值論은 最惡의 「平均」投下勞動價值論이라는 것을 꼭 말해 둘 必要가 있다고 생각한다.

投下勞動價值論에 하나의 隘路가 있다. 同品質等量의 使用價值를 生産하는 데 生産者에 따라서 個別投下勞動量이 다를 수 있는데, 그 相違한 各個別投下勞動量 가운데에서 어느 것이 「價值」가 되느냐 하는 것이다. Ricardo·J.S. Mill의 경우에 있어서는, 相違한 各個別投下勞動量 가운데에서 가장 커다란 「最大」投下勞動量이 「價值」가 된다고 했는데, Marx의 경우에 있어서는 相違한 各個別投下勞動量을 平均한 「平均」投下勞動量이 「價值」가 된다는 것이다. Marx는 個別投下勞動量을 「個別的 價值」라고 했고, 「平均」投下勞動量을 「社會的 價值」 또는 「市場價值」라고 했고, 「平均價值」(Durchschnittswert)라고 했다[林元澤(1982, 389項)].⁽¹⁾

이 Marx의 「平均價值」의 理論을 살리기 위해서는, Marx의 「價值法則」=等價交換의 法則이 物物交換 W-W'의 初期段階에 있어서만 適用된다고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모든 生産物을 生産하는 段階에 있어서는 어떠한 使用價值를 生産하는데 投下되는 모든 個別投下勞動量이 同一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個別投下勞動量=平均投下勞動量이 成立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林元澤(1982, 109項)].

個別投下勞動量=平均投下勞動量이 一般의으로 成立된다고 할 때에는, Marx의 「價值法則」=等價交換의 法則은, 「假設的」平均投下勞動量의 側面에서 볼 때에는 等價交換이 行해지게 되지만, 「事實的」個別投下勞動量의 側面에서 볼 때에는 不等價交換이 行해지게 된다는, 「價值法則」=不等價交換의 法則이 된다는 것이다.

16. 以上과 같이 본다면 Marx 經濟學의 基礎理論인 「價值法則」=等價交換의 法則은 交換法則 III 支配勞動量交換·不等價交換이 物物交換 W-W'의 初期段階에 있어서만 適用되는 하나의 特殊한 경우(a special case)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Marx의 理論에는, 交換法則 I 効用勞動二元基準交換이 勞動一元基準交換이라는

(1) 美國의 最精銳의 Marx 經濟學者 가운데의 한 사람인 Desai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Marx理論과 Ricardo理論의 混同은 兩者의 勞動價值論이 一見 同一한 것 같이 보이는 데에서 發生한다.」 [Desai (1979, p. 29)] 이 程度의 Marx의 價值論에 대한 評價를 보면 美國의 Marx 經濟學의 水準은 그야말로 問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Desai는 「Marx의 勞動價值論의 3個 核心」(three elements crucial to Marxian labour theory)으로서 ① 交換價值에서 使用價值가 役割을 하지 않는다는 것 ② 資本主義下에 있어서는 勞動者는 勞動力을 販賣한다는 것 ③ 勞動力의 價格은 그 職業과 關聯이 없다는 것을 들고 있으며 (Ibid., p. 21), Ricardo의 投下勞動價值論이 「最大」投下勞動價值論인 데 대해서 Marx의 投下勞動價值論이 「平均」投下勞動價值論이라는 最核心의 事項이 전혀 言及되지 않고 있다.

그 不完全한 形態로 되고 있고, 特히 交換法則 II 需要量과 供給量의 一致에 의한 價格決定에 관한 理論이 없다. 그 理由는 方法論의 一元論・心理主義가 無視됨으로써, 「效用」 「極大化」 原理가 登場할 수 없게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서 Sweezy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價格決定에 있어서의 競爭의 需要供給의 理論은, 勞動價值論과 一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 勞動價值論의 不可缺의 一部分(an integral part of the labour theory)을 이루고 있다. Marx는, 『資本論』 第1卷에 있어서는, 이 點에 言及하지 않고 있다. …그는 그것을 當然한 것으로 보는 傾向이 있었다.」 [林元澤(1982, 114項)]

그런데 物物交換 $W-W'$ 에 있어서는 一般的으로는 交換剩餘의 極大化는, 즉 (4)(5) 또는 (8)과 (6)(7)은, 不等價交換 (9)를 成立시키며, 必然的인 等價交換을 成立시킨다는 保障은 아무 데에도 없다. 但 物物交換 $W-W'$ 의 初期段階 즉 Marx의 「價值法則」=等價交換의 法則이 適用될 수 있는 段階에 있어서만은 需要와 供給에 의한 價格決定이 「價值法則」=等價交換의 法則과 一致된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II. Marx의 剩餘價值論

17. 다음에는 貨幣論과 單純高品生産 $W-G-W'$ 에 있어 適用되는 Marx의 「價值法則」=等價交換의 法則의 矛盾은 여기서는 省略하고 [林元澤(1982, 第1篇第3章 및 第4章 參照)] 여기서는 資本主義의 商品生産 $G-W \left\langle \frac{P}{A} \dots P \dots W' - G' \right\rangle$ 에 適用된 Marx의 「價值法則」=等價交換의 法則의 矛盾 즉 Marx의 剩餘價值論의 矛盾만을 살펴 보기로 한다.

우선 指摘해 두어야 할 것은, 「投下勞動量」은 資本主義의 商品生産 $G-W \left\langle \frac{P}{A} \dots P \dots W' - G' \right\rangle$ 에 있어서는 「實質費用」을 表示하고 있는 데 대해서, Marx의 경우에 있어서는, 「價值」 즉 「價格」을 表示하고 있다는 것이다. 『資本論』 第1卷에서는 Marx(p. 45)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勞動의 生産性이 커지면 커질수록 一定商品 生産에 投下되는 勞動時間은 低下되고, 따라서 그만큼 投下勞動量도 減少되고, 따라서 그 價值(Wert)도 작아진다.」 한편 『資本論』 第3卷에서는 Marx(p. 259)는 또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産業의 生産性이 增大되면 個個의 商品의 價格(Preis)은 下落한다.」

우리는 여기서 Marx에 있어서는 「投下勞動量=價值=價格」이라는 理論이 展開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投下勞動量=價格」이라고 되고 있다는 것이다. 「投下勞動量」은 「價格」의 「實體」가 아니라 「實質費用」의 「實體」인 것이다. 이것은 經濟學의 ABC도 모르는 사람도 常識적으로 다 알고 있는 J.S. Mill의 所謂 「가장 自명한 眞理」에 다름없다.

이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가장 自명한 眞理」를 Marx가 모르고 있었다는 點에 Marx 經濟學의 「最大誤謬」가 있다.

18. Marx는 『資本論』 第3卷(p. 48)에서 $W=c+v+m$ 을 「現實的 費用價格」이라고 했고, $K=c+v$ 를 「資本主義的 費用價格」이라고 했다. 「商品의 資本主義的 費用(kapitalistische Kost)은 資本에 의한 支出에 의해서 計算되고, 商品의 現實的 費用(wirkliche Kost)은 勞動의 支出에 의해서 計算된다. 그러므로 商品의 資本主義的 費用價格(kapitalistischer Kostpreis)는 商品의 價値 또는 商品의 現實的 費用價格(Wert oder wirklicher Kostpreis)와 量的으로 다르다. 그것은 商品價値보다 작다.」

『資本論』 第1卷에 있어서는 「價値=價格」이라고 規定되고 있었다. 그것이 『資本論』 第3卷에 있어서는 「價値=現實的 費用=現實的 費用價格」이라고 再規定되고 있다. 그리하여 Marx에 있어서는 「費用=價格」이 되고 따라서 「費用價格」이라는 怪異한 概念이 成立되고 있다. 여기에 있어 Marx의 投下勞動價値論은 완전히 自家撞着에 빠지고 만다. Böhm-Bawerk는 『資本論』 第1卷의 「價値」理論과 『資本論』 第3卷의 「生産價格」理論과의 矛盾을 指摘한 바 있지만, 「價値」와 「生産價格」의 兩概念의 矛盾의 根據는, 사실은, Marx에 있어서는 投下勞動量이, 『資本論』 第1卷에 있어서는 「價値=價格」으로서 規定되었던 것이, 『資本論』 第3卷에 있어서는, 「價値=費用=費用價格으로」 再規定되고 있는 데에 緣由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結局 무엇이냐. Marx에 있어서는

$$\text{投下勞動量} = \text{價格} = \text{費用}$$

의 三位一體가 成立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Marx가 「現實的 費用價格」과 「資本主義的 費用價格」을 區分해 놓은 것도 정말로 웃기는 넌센스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19. 다음에는 Marx의 剩餘價値論을 檢討批判해 보기로 하자.

이에 관해서 說明하기 前에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剩餘價値論을 먼저 提示해 놓기로 하자. 앞에서 우리는

$$\text{經濟剩餘} = \text{効用勞動量(目的必然)} - \text{投下勞動量(手段必然)}$$

이라는 經濟剩餘에 관한 定式을 確立해 놓은 바 있다. 그리고 「効用極大化」「勞動極小化」를 통해서 「經濟剩餘極大化」를 追求하게 되며, 이러한 「經濟剩餘極大化」를 위한 人間의 企圖를 經濟原則이라고 規定해 둔 바도 있다[林元澤 (1982, 55項)].

그런데 이러한 企圖는 「人間對 自然의 關係」의 側面에 있어서는 物質的 生産力의 向上

과, 「人間 對 人間의 關係」의 側面에 있어서의 組織・生産關係의 形成의 形態로서 나타났다. 物質的 生産力向上의 推進力이 되었던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技術進歩이었으며, 그리고 또 物質的 生産力向上의 또 하나의 方法은 組織의 活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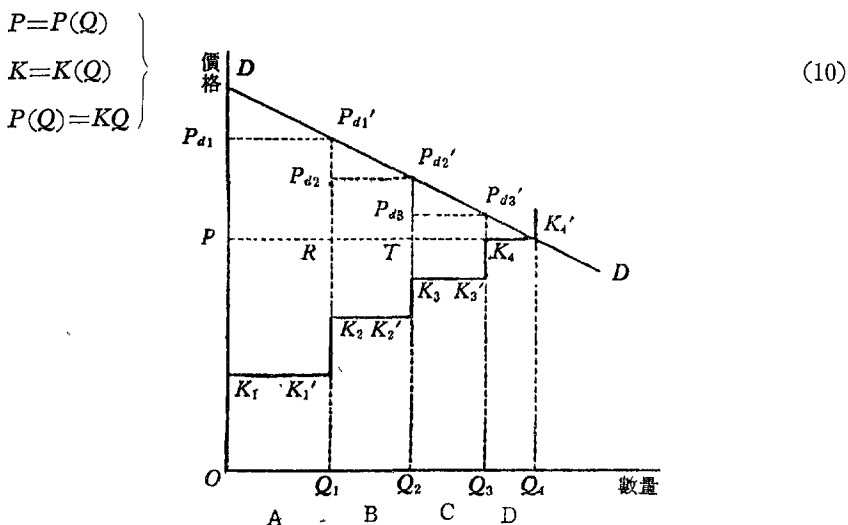
20. 交換經濟가 成立된 後는 經濟剩餘極大化를 위한 努力은 交換剩餘極大化를 위한 努力으로 轉換되게 되었다. 交換剩餘極大化를 위한 方法으로서도 效用極大化와 勞動極小化가 採擇되었다.

但 交換剩餘는 다음과 같은 定式을 取하게 되었다.

$$\begin{aligned} \text{交換剩餘} &= \text{價格} - \text{費用} \\ &= \text{價格} - \text{代替費用} (\text{物物交換} \cdot \text{單純商品生産}) \\ &= \text{價格} - \text{實質費用} (\text{資本主義的 商品生産}) \end{aligned}$$

그런데 前記한 바와 같이 物物交換 $W - W'$ 에 있어서는 (그리고 單純商品生産 $W - G - W'$ 에 있어서도), 交換法則 I 效用勞動二元基準交換, 交換法則 II 需要量과 供給量의 一致에 의한 價格決定, 交換法則 III 支配勞動量交換・不等價交換이 成立되고 있다는 것이 確證되었다[林元澤(1982, 第1篇 第4章)]. 그러면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 - W \left\langle \frac{P}{A} \dots P \dots W' - G' \right\rangle$ 에 있어서는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21. 우리의 效用勞動二元基準交換理論을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 - W \left\langle \frac{P}{A} \dots P \dots W' - G' \right\rangle$ 에 適用시키면, Marshall의 「數量을 媒介變數로 하는 價格決定理論」(短期均衡理論)이 된다는 것이다[林元澤(1982, 288・9項)].



上記 聯立方程式 (10)은 交換法則 I 効用勞動二元基準交換도 表示하고 있고, 交換法則 II 需要量과 供給量의 一致에 의한 價格決定도 나타내고 있다.

$$A \text{ 企業 } OK_1 \times OQ_1 - W_1 \left\langle \frac{P}{A} \dots P \dots W_1' - OP \times OQ_1 \right.$$

$$B \text{ 企業 } Q_1 K_2 \times Q_1 Q_2 - W_2 \left\langle \frac{P}{A} \dots P \dots W_2' - OP \times Q_1 Q_2 \right.$$

$$C \text{ 企業 } Q_2 K_3 \times Q_2 Q_3 - W_3 \left\langle \frac{P}{A} \dots P \dots W_3' - OP \times Q_2 Q_3 \right.$$

$$D \text{ 企業 } Q_3 K_4 \times Q_3 Q_4 - W_4 \left\langle \frac{P}{A} \dots P \dots W_4' - OP \times Q_3 Q_4 \right.$$

以上の Marx의 理論은, Marshall의 同一種類의 商品을 生産하는 1産業에 있어서의 消費 資料價格決定理論의 틀 안에서, 즉 「需要價格」(効用)과 「供給價格」(投下勞動量)을 媒介로 하는 資本主義的 絕對價格理論의 틀 안에서 展開되고 있다는 것을 表示하고 있다. 그리고 Q는 需要量도 供給量도 表示하고 있다.

여기서

$$OP = \text{價格} = \text{効用勞動量}$$

$$OK_1 \cdot Q_1 K_2 \cdot Q_2 K_3 \cdot Q_3 K_4 = \text{平均實質費用} \\ = \text{投下勞動量}$$

이 되고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22. 平均實質費用에 正常利潤이 包含되고 있다고 한다면 超過利潤은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begin{aligned}
\text{超過利潤} &= OP - OK_1(Q_1 K_2 \cdot Q_2 K_3 \cdot Q_3 K_4) \\
&= \text{價格} - \text{平均實質費用(A)} \\
&= \text{効用勞動量} - \text{投下勞動量(B)} \\
&= \text{支配勞動量} - \text{投下勞動量(C)} \\
&= \text{限界內企業의 勞動의 限界價値生産力} - \text{賃金(D)} \\
&= \text{不等價交換에 의한 不拂勞動(E)} \\
&= \text{非資本家的 消費者의 有効需要(F)}
\end{aligned}
\tag{11}$$

以上을 說明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① A企業이 平均實質費用 OK_1 , 價格 OP 로 OQ_1 量만큼을 販賣했다고 한다면, $PK_1 K_1' R$ 만큼의 超過利潤이 즉 Marshall의 「生産者剩餘」가 發生되는 結果를 가져오게 한다. 그런데 이것은 또 바꾸어 말하면, 다음과 같은 말도 될 것이다. 購買者が 價格 OP 로 購買하는 것에 同意해 줌으로써(拒否하지 않고) 超過利潤 $PK_1 K_1' R$ 을 實現시켜 주게 되는 것이라고.

만약 購買者가 價格 OP 가 비싸다고 購買하지 않았을 때에는 生産者에게 超過利潤 PK_1K_1'/R 은 確保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면 購買者는 왜 價格 OP 가 비싸지 않다고 購買했을까. $DPRP_{d1}$ 만큼의 Marshall의 所謂「消費者剩餘」가 確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left\langle \frac{P}{A} \dots P \dots W' - G' \right\rangle$ 에 있어서의 交換剩餘는 消費者剩餘와 生産者剩餘의 2個로 分割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left\langle \frac{P}{A} \dots P \dots W' - G' \right\rangle$ 에 있어서의 交換剩餘와 物物交換 $W-W'$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서의 交換剩餘와의 本質的인 差異點이라고 할 수 있을 줄 생각한다. 物物交換 $W'-W'$ 과 單純商品生産 $W-G-W'$ 에 있어서의 交換剩餘는 순전히 消費者剩餘로써만 形成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② 그러면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left\langle \frac{P}{A} \dots P \dots W' - G' \right\rangle$ 에 있어서의 消費者剩餘는 어떠한 構成을 갖고 있는가.

$$\begin{aligned} \text{消費者剩餘} &= \text{效用} - \text{價格} \\ &= \text{效用勞動量} - \text{支拂勞動量} \end{aligned}$$

여기서 「效用勞動量」은 價格의 「上限」이 되고, 現實價格은 購買者에게 「投下勞動量」이 되지를 않고 「支拂勞動量」이 된다는 表現을 使用해 두기로 한다.

그런데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left\langle \frac{P}{A} \dots P \dots W' - G' \right\rangle$ 에 있어서의 販賣者(生産者)에게는

$$\begin{aligned} \text{超過利潤} &= \text{價格} - \text{平均實質費用} \\ &= \text{支配勞動量} - \text{投下勞動量} \end{aligned}$$

이 된다는 것을 注意해 주기 바란다. 즉 購買者에게 「支拂勞動量」이 되는 現實價格은 販賣者(生産者)에게는 「支配勞動量」이 되며, 한편 「投下勞動量」은 價格의 「下限」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購買者(消費者)는 價格 즉 支拂勞動量이 可及的 알을 것을 願하는 대신, 販賣者(生産者)는 價格 즉 支配勞動量이 可及的 높게 될 것을 願한다.

그리하여 限界內企業(A, B, C)의 경우에 있어서의 購買者(消費者) 對 販賣者(生産者) 사이에 다음과 같은 關係가 成立되고 있다.

$$\text{效用勞動量} > \text{支拂勞動量} = \text{支配勞動量} > \text{投下勞動量}$$

즉 販賣者(生産者)는 購買者(消費者)의 消費者剩餘를 미끼로 삼아서 超過利潤을 獲得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販賣者(生産者)는 生産過程 $W \left\langle \frac{P}{A} \dots P \dots W' \right\rangle$ 에서 效用極大化(品質向上)·勞動極小化(平均實質費用切下)를 成就시키기 위해서, 즉 需要曲線 DD 의 上方으로의 移動과 平均實質費用曲線 KK 의 下方으로의 移動을 圖謀하고자 技術革新·組織分化·經營方法의 改善 等を 促求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販賣者(生産者)는 商品을 高品質化하여 高價格을 받을 수 있는 反面, 平均實質費用도 切下할 수 있다. 보통의 경우 大

資本·大企業일수록, 資本集約化를 통해서 高品質化·高價格化·平均實質費用切下를 成就하기가 쉬운 反面, 小資本·小企業일수록 그것을 成就하기가 어렵다. 이것이 産業의 需要曲線을 右下形態로 만들게 하고 또 그 平均費用曲線을 右上形態로 만들게 하는 主要原因에 다름이 없다.

여기서 Schumpeter(1934, p.30)의 「高品質高價格」(the higher price received for the better commodity)의 理論이 반드시 紹介되어야 하는데 Marx의 價値論은 그것이 紹介될 수 없도록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強調해 두고자 한다. 이것은 또 다음과 같이도 表現될 수 있을 것이다. 「品質向上」·「平均實質費用切下」·「消費者主權」은 우리의 效用勞動二元基準交換理論으로부터서는 나올 수 있고 Marx의 投下勞動價値論으로부터서는 나올 수 없다고.

23. 上記한 바와 같이, 不完全競爭에 있어서는 限界內企業에 있어

$$\text{效用勞動量} > \text{支配勞動量(支配勞動量)}$$

이 成立됨으로써 消費者剩餘가 成立되므로,

$$\text{效用勞動量} > \text{支配勞動量}$$

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需要曲線과 平均實質費用曲線이 交叉되는 點에서는, 즉 限界企業에서는

$$\text{效用勞動量} = \text{支配勞動量} = \text{平均實質費用}$$

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1産業에 있어서는 그 限界效用勞動량이 그 産業의 支配勞動量 = 價格을 決定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同一의 商品이라고 하더라도, 不完全競爭狀態를 想定할 경우, 商品差別化를 前提해야 하므로, 大資本·大企業 A의 경우의 需要曲線 DP_{d1} 가 商品이 가장 高品質이므로 가장 上位에 있게 되고, 中資本·中企業 B, C의 경우의 需要曲線 P_{d1}/P_{d2} · P_{d2}/P_{d3} 는 商品이 中品質이므로 中位에 있게 되고, 小資本·小企業인 D의 경우의 需要曲線 P_{d3}/P_{d4} 는 同一의 商品 가운데에서도 가장 低品質이므로 가장 下位에 있게 된다. 그리하여 高品質高價格·低品質低價格의 現象이 發生되게 되는 것이다.

한편 大資本·大企業 A의 平均實質費用 OK_1 이 가장 낮고, 中資本·中企業 B·C의 平均實質費用 OK_2 · OK_3 는 그 다음으로 낮고, 小資本·小企業 D의 平均實質費用 OK_4 는 가장 높으므로, 大資本·大企業 A의 利潤率이 가장 높고, 中資本·中企業 B·C의 利潤率은 그 다음으로 높고, 小資本·小企業의 利潤率은 가장 낮다는 結論이 自動的으로 誘導되게 될 줄 안다. 즉 不完全競爭에 있어서는 利潤率不均等化 또는 不均等利潤率의 法則이 여기서 成立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4. 그리고 大資本·大企業 A의 平均實質費用이 가장 낮다는 것은 賃金上昇의 可能性이 가장 크다는 것을 意味하고, 中資本·中企業 B·C 平均實質費用이 그 다음으로 낮다는 것은 賃金上昇의 可能性이 그 다음으로 크다는 것을 意味하고, 小資本·小企業 D의 平均實質費用이 가장 높다는 것은 賃金上昇의 可能性이 가장 稀薄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리하여 大資本·大企業에게는 高品質·高價格·高賃金이 成立되는 反面, 小資本·小企業에게는 低品質·低價格·低賃金이 成立되게 되는 것이다.

25. 그러면 마지막으로 超過利潤은 어떻게 해서 發生되는 것인가를 보기로 하자. 不完全競爭에 있어, D企業보다 B·C企業이 B·C企業보다 A企業이 즉 大資本·大企業이 小資本·小企業보다 더 많은 超過利潤을 獲得하는 것은, A企業이 採擇한 勞動手段이 B·C企業이 採擇한 勞動手段보다 相對적으로 優秀하기 때문이고, B·C企業이 採擇한 勞動手段이 D企業이 採擇한 勞動手段보다 相對적으로 優秀하기 때문이다. 즉 大資本·大企業이 高價로 購入한 勞動手段이 小資本·小企業이 低價로 購入한 勞動手段보다 相對적으로 優秀하기 때문이다. 즉 資本集約度에 있어 大資本·大企業이 小資本·小企業보다 有利하다는 말이다.

그러면 A 勞動手段이 B 勞動手段보다 相對적으로 優秀하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A 勞動手段을 使用한 勞動의 限界價值生産力을 B 勞動手段을 使用한 勞動의 限界價值生産力보다 크게 함으로써 平均實質費用을 一層 더 切下시킬 수 있고, 또 品質向上을 통해서 즉 需要曲線도 一層 더 上方으로 移動시켜 高品質化를 통한 價格引上也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하여 超過利潤을 發生시키는 것은 勞動手段이라고 할 수 있다. Marshall(1927 p.74)은 超過利潤을 「生産者剩餘」라고도 稱했고, 또 「準地代」라고도 稱했다. 그는 「超過利潤을 어떠한 特殊한 機械(any particular machine)가 發生시켜 놓는 所得」이라고 했다. 正鵠은 此를 表現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하여 農業生産에 있어 「어떠한 特殊한 土地」가 發生시켜 놓은 超過利潤이 「差額地代」라는 名稱으로 그 土地의 所有者에게 歸屬되는 바와 같이, 工業生産에 있어서도 「어떠한 特殊한 機械」가 發生시켜 놓은 超過利潤은 「準地代」의 名稱으로 그 機械의 所有者에게 歸屬되게 된다는 것이다.

26. 그러면 超過利潤은 生産過程 $W \left\langle \frac{P}{A} \dots P \dots W' \right\rangle$ 에 있어서의 「資本家 對 勞動者」의 關係에서, 그리고 또 流通過程 $W' - G'$ 에 있어서의 「生産者 對 消費者」와의 關係에서 어떠한 本質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기로 하자. 우선 生産過程 $W \left\langle \frac{P}{A} \dots P \dots W' \right\rangle$ 에서 「어떠한 特殊한 機械」에 의해서 (11) (A)(B)(C)(D)의 形態로서 즉 「資本家 對 勞動者」의 關係속에서 超過利潤이 生産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流通過程 $W' - G'$ 에서 (11) (E)의 形態에 있어 즉 「生産者 對 消費者」의 關係에 있어 超過利潤은 實現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超過利

潤은 「事前」의 生産過程 $W \left\langle \frac{P}{A} \dots P \dots W' \right\rangle$ 와 「事後」의 流過程 $W' - G'$ 의 2個의 過程을 다 거치고 나서야 現實化되게끔 되고 있는 것이다.

生産過程 $W \left\langle \frac{P}{A} \dots P \dots W' \right\rangle$ 이 왜 「事前」이 되는가 하면 生産過程 $W \left\langle \frac{P}{A} \dots P \dots W' \right\rangle$ 에 있어 平均實質費用切下・品質向上을 통한 價格引上을 통한 利潤極大化가 「準備」되는 까닭이며, 流過程 $W' - G'$ 이 왜 「事後」가 되는가 하면, 生産過程 $W \left\langle \frac{P}{A} \dots P \dots W' \right\rangle$ 에 있어 「準備」되었던 超過利潤이 販賣를 통해서 「現實化」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生産過程 $W \left\langle \frac{P}{A} \dots P \dots W' \right\rangle$ 에 있어 對立되고 있던 「資本家 對 勞動者」는 流過程 $W' - G'$ 에 있어서는 對立되고 있는 「生産者 對 消費者」의 關係로 바뀌어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超過利潤의 實體는 流過程 $W' - G'$ 에 있어 (11)(E) 「不等價交換에 의한 不拂勞動」과 (11)(F) 「非資本家的 消費者의 有效需要」가 된다. 여기서 한가지 留意해야 할 것은 資本家로서의 消費者도 不等價交換價에 의해서 流過程 $W' - G'$ 에 있어 其他 資本家=生産者에 의해서 搾取당하지만 그 搾取당한 實體인 「資本家的 消費者의 有效需要」라는 것이 사실은 「非資本家的 消費者의 有效需要」에 의해서 構成되고 있으므로 資本家的 消費者는 流過程 $W' - G'$ 에 있어 不等價交換을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搾取는 당하지 않고 있다고 보아야 된다는 것이다.

結局 여기서 두가지 結論이 誘導되게 될 줄로 안다. ① 「勞動者」는 「資本家」에 의해서 生産過程 $W \left\langle \frac{P}{A} \dots P \dots W' \right\rangle$ 에 있어 「事前」의 搾取당하고 流過程 $W' - G'$ 에 있어 「消費者」로서 「生産者」에 의해서 「事後」의 不等價交換에 의해서 搾取당한다. ② 「流過程利潤發生理論」은 「生産過程利潤事前發生理論」을 그 속에 包含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技術革新・品質向上・生産性向上은 「生産過程利潤事前發生理論」에 속하지만, 인플레이션(物價上昇)에 의한 消費者搾取는 「流過程利潤發生理論」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다.

27. 이리하여 우리의 剩餘價值論은 「相對」으로 優秀한 勞動手段 즉 Marshall의 所謂 「어떠한 特殊한 機械」와 「相對」으로 低劣한 勞動手段과의 格差에 의해서 發生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發生된 超過利潤은 「相對」으로 優秀한 勞動手段의 所有者에게 歸屬된다는 것이다. Marx는 不變資本 c 는 超過利潤을 生産하지 않고 可變資本 v 가 즉 直接勞動만이 剩餘價值를 生産한다고 하는 理論을 展開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는 必死의 反對할 뿐이다. Marx는 「生産手段의 價值는 生産物에로의 그 移轉(Übertragung)에 의해서 保存되게 된다(erhalten)」고 말하고 있다[林元澤(1982, 384項)]. 千萬의 말씀이다! Marx의 이 理論에 의하면 石器時代의 돌로써 生産物을 만들어서 剩餘를 發生시키는 것이나, 하이테크時代 AI(人工知能)에 의해서 高級使用價值를 生産해서 剩餘價值를 發生시키는 것이나 剩餘價值는 直接勞動의 勞動力의 價值(「必要勞動時間」)를 超過하는 勞動力의 使用價值(「勞

動日)의 超過勞動時間에 差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J.S. Mill의 「가장 自명한 眞理」를 無視한 Marx經濟學의 「最大誤謬」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28. Marx는 剩餘價值를 「投下勞動量」 즉 그의 所謂 「勞動日」의 延長에 의해서 生産되는 「絶對的 剩餘價值」와 「必要勞動時間」의 短縮에 의해서 發生되는 「相對的 剩餘價值」의 2個로 區分하고 있다〔林元澤(1982, 384項)〕. 「絶對的 剩餘價值」란, 「生産量增加에 의한 利潤增加」를 意味하고 있으며, Marx理論에는 存在하지 않는 平均實質費用節減을 意味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에 관해서는 問題삼지 않기로 하고, 「相對的 剩餘價值」만을 問題삼기로 하자.

「相對的 剩餘價值」가 「必要勞動時間」의 短縮 즉 「勞動力の 價值」 低下에 의해서 發生되는 過程을 Eaton은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相對的 剩餘價值는, 機械의 改良, 組織의 改良, 其他 資本家가 採用하는 技術進步 等に 의한 生産性的 增大로부터 發生되게 된다. 그러나——우리가 만약 事態의 根源에 과고들어가 본다면——이들이 勞動者의 必要生活手段을 安價로 만든다는 結果를 가져오는 限에 있어서만(only in so far as these result in cheapening the workers' necessaries of life)이라는 條件이 거기에 添加되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리하여 Marx의 「相對的 剩餘價值」란, ① 賃金財生産部門에 新機械·新技術이 導入되어, 賃金財의 「價值=價格」이 下落됨으로써 ② 勞動者의 賃金이 生活水準의 低下를 가져 오지 않고 低下됨으로써 增加되는 超過利潤을 意味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林元澤(1982, 386項)〕.

즉 Marx에 의하면 技術革新은 賃金財生産部門에 있어서만 發生해야 된다는 것이다. 정말 웃기는 말이 아닌가!

29. Marx는 또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새로운 方法을 採用한 資本家가 그의 商品을 1실링이라는 그 社會的 價值로써 販賣한다면, 그는 그 個別的 價值보다도 3펜스만큼 비싸게 販賣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3펜스만큼의 特別剩餘價值가 實現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第3種類의 剩餘價值인 「特別剩餘價值」 또는 「超過利潤」에 관한 Marx의 理論이 登場하게 되는 것이다. 즉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left\langle \frac{P}{A}^m \dots P \dots W' - G' \right\rangle$ 에 있어서의 「平均價值」理論이 登場하게 되는 것이다〔林元澤(1982, 389項)〕. 여기서 Marx는 企業의 規模가 相

	個別的價值	生産量	總價值	平均價值	總平均價值	特別剩餘價值
I	20	20	400	34	680	+280
Ⅱ	30	50	1,500	34	1,700	+200
Ⅲ	50	30	1,500	34	1,020	-480
		100	3,400			

異한 不完全競爭狀態를 想定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 物物交換 $W-W'$ 의 初期段階에 있어서만은 Marx의 「平均價值」理論이 適用될 수 있다고 格別한 寬容的 態度를 表示한 일이 있다. 그런데 不完全競爭이 支配하는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left\langle \frac{P}{A} \dots P \dots W' - G' \right\rangle$ 에 있어서, Marx의 「平均價值」理論은 절대로 適用될 수가 없다는 것을 斷乎히 말해 두고자 한다.

도대체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W \left\langle \frac{P}{A} \dots P \dots W' - G' \right\rangle$ 에 있어서의 「平均價值」란 어떠한 것이나.

個別的價值

$$\begin{aligned}
\text{I. } & 20(10c + 5v + 5m) = 400 \\
\text{II. } & 50(18c + 6v + 6m) = 1,500 \\
\text{III. } & 30\left(\frac{110}{3}c + \frac{20}{3}v + \frac{20}{3}m\right) = 1,500 \\
\hline
& 2,200c + 600v + 600m = 3,400 \\
& 100(22c + 6v + 6m) = 3,400 \\
& 22c + 6v + 6m = 34 \text{——平均價值}
\end{aligned}$$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Marx는 부르주아經濟學者가 自己를 「輕蔑的인 默殺로써(with contemptuous silence) 對한다」고 말한 일이 있는데, 우리는 이 Marx가 만들어 낸 妖怪 「平均價值」에 대해서, 「輕蔑的인 默殺로써」가 아니라 큰 소리로 그것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외치고자 한다[Horowitz (1968. p. 11)].

따라서 「特別剩餘價值=平均價值-個別的 價值」라는 規定도 완전한 넌센스가 되고 만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特別剩餘價值」란, 大資本·大企業 A가 獲得하는 超過利潤 $PK_1K_1'R$ 이 中資本·中企業 B가 獲得하는 超過利潤 $RK_2K_2'T$ 를 上回하는 部分을 指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A企業의 平均實質費用(이것은 精密하게 算出될 수 있다)이 B企業의 平均實質費用(이것도 精密하게 算正할 수 있다)보다 얼마가(이것은 A·B 兩企業이 모두 算出해 낸다고 보아야 한다) 더 얇은가에 의해서 說明되어야 할 것이다. III企業의 480의 價值가 I企業으로 280, II企業으로 200이 「移轉」됨으로써 「資本家에 의한 資本家の 榨取」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理論도 「平均價值」라는 妖怪가 發生시켜 놓은 그야말로 「輕蔑的인 默殺」을 받아 마땅할 理論이라고 생각한다. 이 모두 「實質費用」을 表示해야 할 「投下勞動量」이 영뚱하게도 「價格」을 表示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特別剩餘價值」=「超過利潤」을 說明하기 위해서, ① 不完全競爭(短期均衡下)에 있어서의 ② Marshall의 右上形態의 平均實質費用曲線이 있으면 足하다. 그런데 Marshall의 右上形態의 平均實質費用曲線은

Ricardo의 最大投下勞動價值論(限界投下勞動價值論)으로부터 誘導될 수 있는 것이므로 Marx의 平均投下勞動價值論은 틀렸어도, Ricardo의 最大投下勞動價值論(限界投下勞動價值論)은 妥當성을 갖는다는 結論이 스스로 誘導될 줄 안다.

30. Marx經濟學의 「最大誤謬」 가운데의 또 하나는 所謂「資本의 有機的構成의 高度化에 의한 利潤率低下」에 관한 命題이다.

資	本	剩餘價值率	剩餘價值	生産物價值	利潤率
I	80c+20v	100%	20	120	20%
II	70c+30v	100%	30	130	30%
III	60c+40v	100%	40	140	40%
IV	85c+15v	100%	15	115	15%
V	95c+5v	100%	5	105	5%

Marx는 『資本論』 第3卷에 있어 以上과 같은 表式을 提示하고 있다[林元澤(1982, 379項 參照)]. 그리하여 Marx는 이로부터 「資本의 有機的構成高度化에 따르는 利潤率低下」에 관한 定式을 誘導해 내고 있다. 즉 資本集約的인 V 95c+5v는 겨우 利潤率이 5퍼센트에 지나지 않는 데 대해서, 勞動集約的인 III 60c+40c는, 同一額의 貨幣資本投下에도 불구하고, 利潤率이 40퍼센트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도 「가장 自명한 眞理」를 無視한 Marx經濟學의 「最大誤謬」 가운데의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물론 Marx의 이러한 理論展開의 基底에는 「事前的」인 剩餘價值率이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꼭 같이 100퍼센트라고 前提되고 있다는 넌센스가 있다. Sweezy(1942, p. 102)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Marx가 資本의 有機的構成高度化에 있어 剩餘價值率이 固定되고 있다고 假定한 것은, Marx自身の 理論體系로 보아도, 옳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이 생각한다. 資本의 有機的構成高度化는 勞動生産性的의 上昇을 意味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生産性的의 高度化는 例外없이 剩餘價值率의 上昇을 意味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資本의 有機的構成高度化는 剩餘價值率의 上昇과 併行해서 進行된다고 假定해야 한다.」

資本의 有機的構成高度化가 勞動生産性上昇을 意味하고 있다는 것은 Sweezy가 말하고 있는 바와 같다. 그런데 勞動生産性上昇은 Marx가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은 「價格下落」도 그리고 Sweezy가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은 「剩餘價值率上昇」도 가져오지 않고, 産業에 있어서의 賃金이 同一하다고 한다면, 다행히도 바로 「平均實質費用」 低下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다.

資本의 有機的構成高度化 즉 資本集約化는 ① 勞動生産性上昇을 통해서 그 平均實質費用을 低下시키고 ② 品質向上 즉 需要關係의 上方으로의 移動을 통해서 그 價格을 引上시키므로써 「利潤率을 上昇」시키는 作用을 하는 것이 原則으로 되고 있다. 그리하여 不完全競爭에

있어 大資本·大企業은 小資本·小企業보다도 有利한 資本集約化를 期할 수 있으며, 따
서 價格競爭에 있어서도 그리고 品質競爭에 있어서도 優位를 確保할 수 있게끔 되고 있다.

그리고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 - W \left\langle \frac{P^m}{A} \dots P \dots W' - G' \right\rangle$ 에 있어서는 Marx의 所謂 剩餘價
值率이 「事前的」 動機가 될 수 없고, 「事前的 動機」가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利潤率」이
는 것을 다시 한번 確認해 두기로 하자.

31. Desai(1979, pp.23-4)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왜 Marx가 機械가 剩餘價
值를 創造하지 않는다고 말했는가 보다 重要하다. Marx도 機械가 生産的이라는 것, 즉 機
械가 價値를 갖고 있다는 것을 否定하지 않는다. 機械에 의해서 生産過程에 있어 生産된 價
値는 機械의 使用에 대해서 資本家가 支拂한 賃貸料(the rental paid by the capitalist for
the use of machine)와 같다. 資本家가 그 機械를 所有하고 있든 또는 賃貸하고 있든(whether
the capitalist owns the machine or rents it) 그것은 여기서 問題가 되지 않는다. 問題는
機械에 의해서 生産된 價値(the value produced by the machine)는——그것은 Marx가 말한
바와 같이, 機械로부터 最終生産物로 移轉된 價値는——機械의 價格과 같다. 이것은 機械
와 原材料의 費用은 前拂貨幣 G 속에 包含되고 있다는 것이다. 剩餘價値의 唯一의 可能한
源泉(only possible source)으로서 남는 것은 G에 의해서 購買된 第3의 要素 勞動力이다.」

生産手段의 價格은 그 生産手段의 限界價値生産力에 의해서 決定된다는 것이 곧 우리의
見解이다[林元澤(1982, 319項 參照)]. Desai는 機械의 價格은 「機械에 의해서 生産된 價値」
에 의해서 決定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 「機械에 의해서 生産된 價値」를 「機械의 限界價値
生産力」과 同一한 것이라고 看做한다면 Desai의 生産手段價格決定理論은 옳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Marx는 生産手段의 價格은 그 平均投下勞動力에 의해서 決定
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Desai의 生産手段價格決定理論은 Marx의 立場에서 볼 때에는
誤謬를 범했다고 아니할 수 없을 줄 생각한다.

超過利潤은 우리가 이제까지 反復해서 主張해 온 바와 같이, 限界企業의 機械의 限界價
値生産力보다 相對的으로 優秀한 機械의 限界價値生産力을 갖고 있는 限界內企業에 있어
發生되며, 相對的으로 優秀한 機械의 限界價値生産力에 立脚한 相對的으로 優秀한 勞動의
限界價値生産力과 相對的으로 劣等한 機械의 限界價値生産力에 立脚한 相對的으로 劣等한
勞動의 限界價値生産力과의 差異에서 發生된다고 할 수 있다.

結局 우리가 이미 (11)(D)에 있어 規定해 놓은

$$\begin{aligned} \text{超過利潤} &= \text{限界內企業의 勞動의 限界價値生産力} - \text{賃金} \\ &= \text{限界企業의 平均實質費用} - \text{限界內企業의 平均實質費用} \end{aligned}$$

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但 여기서 1産業에 있어서의 賃金은 그 産業에 있어서의 限界企業의 勞動의 限界價值生産力에 의해서 決定된다고 한다[林元澤(1982, 333項)]. 그리하여 結局 超過利潤은 相對적으로 優秀한(高生産性的) 機械를 갖고 있는 限界內企業에 있어서의 보다 커다란 勞動의 限界價值生産력과 相對적으로 優秀하지 못한(低生産性的) 機械를 갖고 있는 限界企業에 있어서의 보다 작은 勞動의 限界價值生産力(=그 産業의 賃金)과의 格差에 의해서 發生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또 (11) (A)에 있어서는 高生産性企業은 平均實質費用이 낮고 低生産性企業은 平均實質費用이 높다는 現象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剩餘價值形成에 나타나는 生産性效果는 단순한 「唯一한 可能的 源泉」으로서의 勞動力의 使用價值(勞動日)와 價值(必要勞動時間)의 差額만으로써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強調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資本論』 第3卷에서 Marx (p. 477)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그들이 받는 配當은 利子和 企業者利得을, 즉 總利潤을 包含하고 있을 경우에도 (經營者の 俸給은 其他 모든 勞動과 같이 그 價格이 勞動市場에서 調節되는 一種의 熟練勞動의 단순한 勞動賃金이다), 이 總利潤은 利子의 形態로서만 資本所有者의 단순한 補償으로서 受領된다.」 여기에 있어 J.S. Mill에 나타나고 있는 「利子=超過利潤=地代」의 思想이 Marx에 있어서도 若干 나타나고 있는 듯이 생각된다. 그런데 Desai는 그것을 擴大解釋하여, Marx經濟學에 있어서도 「利子=超過利潤=地代」의 理論이 成立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確證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林元澤(1986, p. 28)].

Schumpeter가 生産手段은 「借入」되는 對象이 아니라 「購買」되는 對象이라는 것을 強力히 主張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想起해 두기로 하자[林元澤(1982, 432項)].

32. 다음에는 Marx에 있어서의 「價值的 生産價格으로의 轉形」에 관한 問題를 取扱해 보기로 하자.

Marx는 우선 「利潤率의 平均化」 즉 「平均利潤率」의 成立을 다음과 같이 主張하고 있다. 「여러 相異한 生産部門에 投下되고 있는 諸資本의 有機的構成이 相異한 結果... 이에 따라서 여러 相異한 生産部門에 있어 支配하는 여러 利潤率도 各各 相異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이 여러 相異한 諸利潤率은 競爭에 의해서 이 모든 여러 相異한 諸利潤率의 平均인 하나의 一般的 利潤率로 均等化되게 된다.」[林元澤 (1982, 379項)]

우선 以上の Marx의 「平均利潤率」理論이 成立될 수 있는 것은 모든 企業이 同一規模의 資本을 갖고 있는 따라서 同一의 平均實質費用을 갖고 있는 完全競爭의 경우 뿐이며, 즉 Marshall의 價格理論에 있어서의 長期均衡이 成立될 수 있는 경우 뿐이며, 大企業・大資本

과 小企業·小資本이 競合하고 있는 不完全競爭의 경우에 있어서는, 즉 Marshall의 價格理論에 있어서의 平均實質費用曲線이 右上形態를 取하고 있는 短期均衡이 成立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平均利潤率은 成立될 수 없게끔 되고 있다.

Marshall에 있어서의 「短期均衡」 「長期均衡」을 「動學化」한 Schumpeter는 「循環→發展→循環」 「均衡→不均衡→均衡」을 즉 「完全競爭→不完全競爭→完全競爭」의 「發展」理論을 展開해 놓은 바 있는데, 「完全競爭→不完全競爭→完全競爭」을 可能하게 하기 위한 安全辦으로서 Schumpeter는 「信用創造」라는 理論의 裝置를 設定해 놓았던 것이다[林元澤(1982, 428·433項)]. 그리하여 Schumpeter(1926, p. 38)도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平均利潤率」理論을 明示적으로 否定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企業者利潤率이 平均化된다는 것은 事實상 存在하지 않는 傾向이며, 이에 관해서 말할 아무 것도 없다. 同一場所, 同一時刻 그리고 同一部門에 있어서는 利潤이 同一하지 않다는 것이 事實인데도 不拘하고,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은 利子와 利潤을 同一視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結論적으로 말하면 現實적으로 存在하는 것은 「利潤率의 不均等化」 「不均等利潤率」이며 「利潤率의 平均化」 「平均利潤率」이 아니라는 것이다.

33. Marx는 「生産價格」을 다음과 같이 規定지우고 있다. 「여러 生産部門에 있어서는 여러 利潤率의 平均이 誘導되고 이 平均이 여러 生産部門의 여러 費用價格에 加算됨으로써 成立되는 여러 價格 이것이 곧 生産價格이다.」[林元澤(1982, 379項)]

여기서 Marx가 말하고 있는 「費用價格」이란 두말할 것도 없이 「資本主義的 費用價格」일 것이다. 不變資本 c 可變資本 v 의 合計인 「資本主義的 費用價格」 k 와 剩餘價值 m 은 價值 W

$$W = c + v + m = k + m$$

를 構成하게 될 것이다. 平均利潤率 π' , 平均利潤 π , 「生産價格」 P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關係가 成立된다.

$$P = k + \pi = k + (c + v)\pi'$$

그런데 Marx는 「價值」는 「理論적으로 또 歷史적으로 生産價格의 先行者」라고 말하고 있다[林元澤(1982, 379項)]. 즉 「價值」는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 - W \left\langle \frac{P}{A} \dots P \dots W' - G' \right\rangle$ 에 있어서는 「生産價格」으로 「轉形」된다는 것이다. 이 「轉形」問題를 둘러싸고 Böhm-Bawerk의 저 有名한 古典的인 反論을 비롯해서 Marx經濟學 아니 全理論經濟學의 歷史上 이루 말할 수 없는 大規模의 論爭을 불러일으켜 놓은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林元澤(1982, 380項)]. 물론 여기서 우리는 轉形論爭史를 追跡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轉形問題에 관한 우리의 見解를 밝히고 그치기로 한다. 端的으로 말하면,

「價值」라는 것도 틀렸고, 「生産價格」이라는 것도 틀린 (우리는 不均等利潤率의 前提 위에 立脚하고 있기 때문에) 理論展開이므로, 「價値의 生産價格으로의 轉形」이란, 우리의 눈에 는, 「誤謬로부터 誤謬로의 轉形」에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價値」에 있어서는 剩餘 價値率이 「事前的」動機가 되고 있는 데 대해서 「生産價格」에 있어서는 利潤率이 「事前的」 動機가 되고 있다는 內部的 矛盾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指摘해 두어야 한다.

이 問題와 關聯해서 Robinson(1968, p. 114)의 資本의 有機的構成高度化에 관한 見解를 紹介해 두기로 한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Marx는 技術進步(technical progress)가 勞動單位當資本(capital per unit of labour)를 반드시 增加시키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近年에 많은 資本節約的 發明(capital-saving inventions) (이를테덤 電線 대신에 나타난 無線)이 이루어지고 있다. 今後 資本節約的 發明이 資本使用的 發明(capital-using inventions)과 均衡을 이루게(balance) 될 것이라고 推測할 수 있다. 그리하여 技術 進步는 生産性은 계속 上昇시키겠지만 有機的構成高度化는 中止된다.」

34. Marx(p. 206)는 「市場價値」라는 概念과 나란히 「市場價格」이라는 概念을 『資本論』 第3卷에서 使用하고 있다. 「市場價格이 市場價値에 一致됨으로써 그 以上으로 上昇도 되지 않고 그 以下로 下降도 되지 않으므로써 市場價値로부터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販賣者 間의 競争이 社會가 需要하고 있는 만큼의 供給을 提供하는 데 있다.」 즉 供給과 需要가 一致될 때에는 「市場價格」은 「市場價値」와 一致되고 供給이 需要보다 크면 「市場價格」은 「市場價値」로부터 下方으로 떨어지게 되고, 需要가 供給보다 클 때에는 「市場價格」은 「市場價値」로부터 上方으로 上昇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Marx의 價値論에 需要供給에 관한 理論이 登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理論은, 「市場價値」 즉 「平均投下勞動量」의 實體가 供給과 需要의 一致와는 何等 關聯이 없는 「實質費用」을 意味하고 있으므로, 이 理論도 년센스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Marx(p. 216)는 말하고 있다. 「市場價値로부터 乖離되고 있는 市場價格(von den Marktwerten abweichenden Marktpreise)은 그들의 平均數(Durchschnittszahl)에 의해서 본다면 市場價値에까지 平均化된다. 즉 市場價値로부터의 乖離는 플러스·마이너스로서 相殺되고 만다.」 정말 웃기는 말이 아닌가!

35. 『資本論』 第3卷 181面에는 다음과 같은 表式이 掲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앞에서 우리는 Marx가 「個別的 價値」로부터 「社會的 價値」=「市場價値」=「平均價値」를 誘導해 내고, 거기서부터 Marx가 「特別剩餘價値」=「超過利潤」을 또 誘導해 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Marx는, 「社會的 價値」=「市場價値」=「平均價値」보다 큰 「個別的 價値」를 갖는 企業으로부터 「社會的 價値」=「平均價値」보다 작은 「個別的 價値」를 갖는 企業

에게 「價値의 移轉」이 이루어짐으로써, 「資本家에 의한 資本家の 擄取」가 行해지게 된다는 理論을 展開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

資 本	剩餘價値	價 値	費用價格	價 格	利 潤 率	價値로부터의 價格의 乖離
I $80c+20v$	20	90	70	92	22%	+2
II $70c+30v$	30	111	81	103	22%	-8
III $60c+40v$	40	131	91	113	22%	-18
IV $85c+15v$	15	70	55	77	22%	+7
V $95c+5v$	5	20	15	37	22%	+17

그런데 이번에는 또 「社會的 價値」=「市場價値」=「平均價値」는 「生産價格」으로 轉形된다는 理論을 Marx는 展開하고 있다. 上記 表式이 바로 그것이다. I, II, III, IV, V는 相異한 種類의 商品을 生産하고 있는 異種産業을 表示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同一한 種類의 商品을 生産하는 各資本의 商品價値는

$$\text{「個別的 價値」} \rightarrow \text{「社會的 價値」} = \text{「市場價値」} = \text{「平均價値」}$$

의 過程에서 同價로 決定된다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I, II, III, IV, V의

$$\text{「市場價値」} \rightarrow \text{「生産價格」}$$

의 過程은, 相異한 種類의 商品을 生産하는 異種産業 사이에서 「利潤率平均化」作用에 의해서 展開되는 過程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Marx(p. 225)는 「生産價格」을 「市場生産價格」(Marktproduktionspreis)이라고도 呼稱하고 있다.

우리는 앞에서

$$\text{「個別的 價値」} \rightarrow \text{「社會的 價値」} = \text{「市場價値」} = \text{「平均價値」}$$

에 관한 理論이 완전히 틀렸으며, 이것은 Marshall의 「不完全競爭狀態에 있어서의 右上形態의 平均實質費用曲線」으로 고쳐야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이 Marshall의 「右上形態의 平均實質費用曲線」은 Ricardo의 最大投下勞動價値論(限界投下勞動價値論)으로부터 誘導해 냈다고 볼 수 있으므로, Ricardo의 最大投下勞動價値論(限界投下勞動價値論)은 충분히 妥當性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Marx의 價値論은, 第一次의 誤謬인

$$\text{「個別的 價値」} \rightarrow \text{「社會的 價値」} = \text{「市場價値」} = \text{「平均價値」}$$

에다가, 第二次의 誤謬인

$$\text{「市場價値」} \rightarrow \text{「生産價格」}$$

까지 包含하고 있다. 그러면 Marx의 價値論에 있어서의 第一次의 誤謬와 第二次의 誤謬의

根本原因은 무엇일까. 우리는 앞에서 Marx의 平均投下勞動價值論의 根本誤謬는 ① 本質의 으로서 「實質費用」이 되어야 할 「投下勞動量」이 잘못 「價格」을 表示하는 것으로 되고 있다고 말할 바 있다. 그런데 Marx의 平均投下勞動價值論의 또 하나의 根本誤謬가 ② Marx에 있어서 「平均」은 있어도 「限界」가 없다는 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야 指摘해야 할 段階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Marx의 價值論에 있어서의 第一次的 誤謬·第二次的 誤謬 이 둘다 「平均」에 固着하다가 發生되는 誤謬라고 할 수 있다. Marx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이 生産方法(資本主義的 生産方法)에 있어서는 規律은 無規律性的의 盲目的으로 作用하는 平均法則(Durchschnittsgesetz)으로서만 貫徹될 수 있다.」[林元澤(1982, 390項)]

그리하여, Marx의 價值論은, 第一次的 誤謬와 第二次的 誤謬에다가, 第三次的 誤謬인

「市場價值」→「市場價格」

이 附加됨으로써 완전히 沈沒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全世界의 Marx經濟學者들에게 다음과 같이 의치고자 한다. 「個別的 價值」와 「社會的 價值」=「市場價值」=「平均價值」와의 「乖離」는 「社會的 價值」=「市場價值」=「平均價值」가 實은 存在하지 않는 幽靈이기 때문에 發生된 것이고(第一次的 誤謬), 「市場價值」와 「生産價格」과의 「乖離」는 兩者가 둘 다 存在하지 않는 幽靈이기 때문에 發生된 것이고(第二次的 誤謬), 「市場價值」와 「市場價格」과의 「乖離」는 「市場價值」가 存在하지 않는 幽靈이기 때문에 發生된 것이다라고(第三次的 誤謬).

36. 以上の 超過利潤에 관한 理論을 資本主義的 農業生産에 適用하면 差額地代에 관한 理論이 된다.

差額地代=限界內企業의 土地의 限界價值生産力

—限界企業의 土地의 限界價值生産力

=限界內企業의 勞動의 限界價值生産力

—限界企業의 勞動의 限界價值生産力(賃金)

=限界企業의 平均實質費用—限界內企業의 平均實質費用

資本主義的 工業生産에 있어 超過利潤을 發生시켜 놓는 것이 數複의 機械의 限界價值生産力에 立脚한 複數의 勞動의 限界價值生産力의 格差인 것같이, 資本主義的 農業生産에 있어 超過利潤을 發生시켜 놓는 것은, 自然的 肥沃度에 差異가 있는 複數의 土地의 限界價值生産力의 格差에 立脚한 複數의 勞動의 限界價值生産力의 格差인 것이다. 但 資本主義的 農業生産에 있어서는, 土地所有者가 農業資本家에게 土地를 貸與해 줄 때에는, 農業資本家は 土地의 自然的 肥沃度에서 發生하는 超過利潤을 스스로 確保할 수 없고 土地所有者에게

差額地代로써 貢獻하고 스스로는 正常利潤(「平均利潤」이 아니고)을 獲得하는 데 그친다. 이 리하여 資本主義의 工業生産에 있어서의 超過利潤과 資本主義의 農業生産에 있어서의 差額地代는, 그 本質上, 꼭 같다고 할 수 있다. Marshall이 前者를 「準地代」라고 呼稱했던 것은 極히 妥當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以上の 差額地代에 관한 理論이 Ricardo의 最大投下勞動價值論=限界投下勞動價值論에 立脚한 差額地代에 관한 理論과 一致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37. 그러면 다음에는 Marx의 平均投下勞動價值論에 立脚한 差額地代에 관한 理論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기로 하자. 「우리는 水力에 의해서 運轉되고 있는 工場에 있어서의 費用價格이 100이 아니라 그냥 90이라고 假定해 두기로 하자. 이들 商品의 市場調節的 生産價格(der den Markt regulierende Produktionspreis)은 15퍼센트의 利潤을 包含해서 115가 되므로, 그들의 機械을 水力에 의해서 運轉하는 工場長들도 역시 115로, 즉 市場價格을 調節하는 平均價格(Durchschnittspreis)에 의해서 販賣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利潤은 15가 아니라 25가 된다. 調節的 生産價格은 그들에게 10퍼센트의 超過利潤을 얻게 해 준다.」(傍點筆者) 「이 超過利潤은 有利한 位置에 있는 生産者의 個別的 生産價格(der individuelle Produktionspreis)과 生産部門全體에 있어서의 一般的 社會的인 市場調節的 生産價格과의 差額과 같다. 이 差額は 商品의 個別的 生産價格을 超過하는 一般的 生産價格(der allgemeine Produktionspreis)과의 差額과 같다.」[Marx (*Das Kapital* III, p. 691)] 「이 個別的 生産價格과 一般的 生産價格과의 差額は 이 個別的 費用價格(der individuelle Kostpreis)과 一般的 費用價格(der allgemeine Kostpreis)과의 差額과 같다.」[Marx (p. 692)]

結局 Marx에 의하면

$$\text{差額地代} = \text{平均價格} - \text{費用價格}$$

$$= \text{一般的 生産價格} - \text{個別的 生産價格}$$

$$= \text{一般的 費用價格} - \text{個別的 費用價格}$$

이 된다는 것이다. 「平均價值」「平均價格」概念이 Marx를 完전한 精神錯亂者로 만들고 있다.

38. 新 Keynes派와 新新古典派 사이에서 展開되었던 所謂 資本論爭에 있어 問題가 되는 것을 한번 學論해 보기로 하자.

$$Q = F(K, L) \tag{A}$$

(A)는 K 즉 「單一의 等質的 實物資本」(single homogeneous real capital), L 즉 等質的 勞動으로 構成되고 있고, K 와 L 에 관해서 1次同次라고 假定되는 「集計的 生産函數」(aggr-

egate production function)라고 한다[Ferguson (1969, p. 253); Harcourt (1972, p. 11)].

(A)는 勞動의 平均生産力(y)과 資本·勞動比率(k)과의 關係로써 表示될 수 있다.

$$y=f(k) \tag{B}$$

(A)에 Euler의 定理가 適用되게 된다면

$$Q=wL+rK \tag{C}$$

$$y=w+rk \left(y=\frac{Q}{L}, k=\frac{K}{L} \right) \tag{D}$$

가 誘導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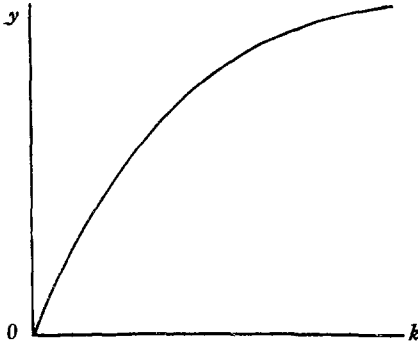
그러면 賃金率 w 과 利潤率 r 는

$$w=y-kf'(k) \t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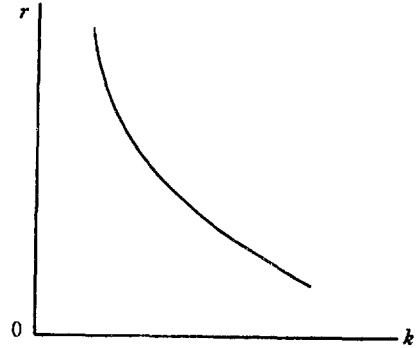
$$r=f'(k)>0 \tag{F}$$

라고 表示될 수 있다. 따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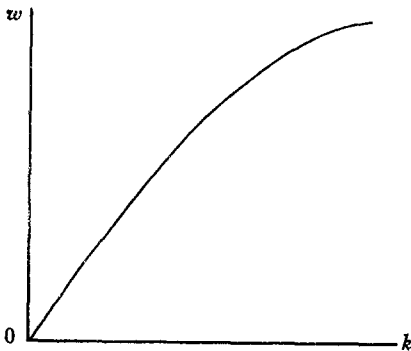
$$\frac{dw}{dk}=-kf''(k)>0 \tag{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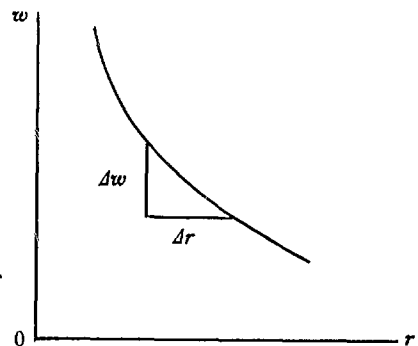
〈圖 1〉



〈圖 2〉



〈圖 3〉



〈圖 4〉

$$\frac{dr}{dk} = f''(k) < 0 \tag{H}$$

그러므로

$$\frac{dw}{dk} \div \frac{dr}{dk} = \frac{dw}{dr} = -k < 0 \tag{I}$$

$$-\frac{r}{w} \frac{dw}{dr} = \frac{r}{w} k = \frac{rK}{wL} = \text{相對的 分配比} \tag{J}$$

〈圖 1〉은 (B)(F)를, 〈圖 2〉는 (H)를, 〈圖 3〉은 (G)를 〈圖 4〉는 (I)를 表示하고 있다 [Ferguson (1969, p. 254)].

39. 以上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命題가 誘導되고 있다. ① 資本·勞動比率이 높으면 높을 수록 즉 資本集約的이면 資本集約的일수록 또 한번 바꾸어 말하면 資本의 有機的構成이 高度化되면 高度化될수록 利潤率은 下落되고 賃金率은 上昇된다는 것이다. ② 따라서 利潤率과 賃金率은 「逆關係」(inverse relationship)에 있게 된다는 것이다.

新新古典派의 以上の 理論展開은, 또는 發想은, 雜多한 數式的 羅列을 除外하고 생각하면, 核心에 있어 Marx式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Samuelson은, 이 點에 있어(「資本의 有機的構成高度化에 의한 利潤率低下」를 主張하는 데 있어), 완전히 Marx式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賃金과 利潤이 서로 逆關係에 있다는 것을 主張한 點에 있어, Samuelson은 Ricardo·Marx의 傳統을 이어 받았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역시 匹(血)가 猶太人의 피가 그러 한 公約數를 만들어 놓았다고 할 수 있을까. 하여튼, 이 點에 있어, 新新古典派 Samuelson은 投下勞動價值論·分解價值論에 立脚한 控除利潤理論을 取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0. 그런데 新新古典派의 以上の 理論에 대한 우리의 見解은 다음과 같다. 新新古典派의 理論에 대한 新 Keynes派에 의한 反論은 여기서 檢討해 볼 對象이 될 수 없기 때문에 省略하기로 한다. 분명히 말해 두지만 우리는 限界生産力的 分配理論의 立場을 取한다. 그런 意味에 있어 우리는 新 Keynes派보다 新新古典派와 더 가까운 關係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個의 學派(新新古典派와 新 Keynes派) 사이에는 根本的인 間隔(a fundamental cleavage)이 있다. 分配理論이 限界價值論의 一側面으로서 看做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어 완전히 對立되고 있다. 分配理論이 限界價值論의 一側面으로서 看做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新古典派와 新新古典派의 見解이다. 이에 대해서 新 Keynes派는 分配理論의 構成原理는 價值理論의 構成原理와 반드시 一致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新 Keynes派는, 生産要素價格과 生産要素의 限界生産力을 結合시키려고 하는 新古典派의 思考方式을 特히 反對한다. 古典派의 방식에 따라서, 즉 Ricardo·Marx의 傳統에 따라서, 分配理論은 新古典派와 다르게 分析되어야 한다고 新 Keynes派는 主張하고 있다. 分配理論은… 價值理論에 論述의 順序 및 理

論分析의 優先順位에 있어 先行(preceding in context and priority)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新 Keynes派의 圖式에 의하면, 賃金率 또는 利潤率 가운데의 하나가 決定되던 價格도 決定된다는 것이다. [Harcourt (1972, pp.1-2)]

우리는 新 Keynes派와 新新古典派와의 「資本論爭」에 있어 前者에 反對하고, 後者를 「修正補完」하려는 立場을 取한다는 것을 明白히 밝혀두고자 한다.

41. ① 우리는 「集計的 生産函數」(A)에 있어, K가 「單一の 等質的 實物資本」이라고 規定되고 있는 點에 難點이 있다는 것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모든 「實物資本」 즉 生産手段이 「單一の 等質的인 것」이 된다면 그것은 모든 生産手段이 同一한 完全競爭을 想定하는 結果가 될 것이다. 그런데 完全競爭下에 있어서는 超過利潤은 存在하지 않게끔 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單一の 等質的 實物資本」에 立脚하는 「集計的 生産函數」의 採擇에 贊意를 表할 수 없다는 結論에 도달하게 될 줄 안다. ② 다음에 우리는 「資本의 限界價值生産力」 즉 「生産手段의 限界價值生産力」은, Schumpeter가 말한 바와 같이 「生産手段」이 資本主義的 商品生産 $G - W \left\langle \frac{P}{A} \dots P \dots W' - G' \right\rangle$ 에 있어서는, 「借入」되는 것이 아니고 「購買」되는 것이기 때문에 [林元澤(1982, 432項)] 「生産手段의 價格」을 表示해야 하고, 利潤=利子를 表示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勞動의 限界價值生産力이 勞動力の 價格 즉 賃金を 表示하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對應해서 「實物資本」 즉 生産手段의 限界價值生産力은 利潤이 아니라 生産手段의 價格을 表示해야 된다는 것은 當然하고도 當然한 理論展開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C)는 成立될 수 없고, 대신

$$\begin{aligned} \text{生産物의 總價格} &= \Sigma(\text{生産手段의 限界價值生産力} \times \text{使用된 生産手段의 數量}) \\ &\quad + \Sigma(\text{勞動의 限界價值生産力} \times \text{雇傭量}) \\ &= \Sigma(\text{生産手段의 價格} \times \text{使用된 生産手段의 數量}) \\ &\quad + \Sigma(\text{勞動의 限界價值生産力} \times \text{雇傭量}) \end{alig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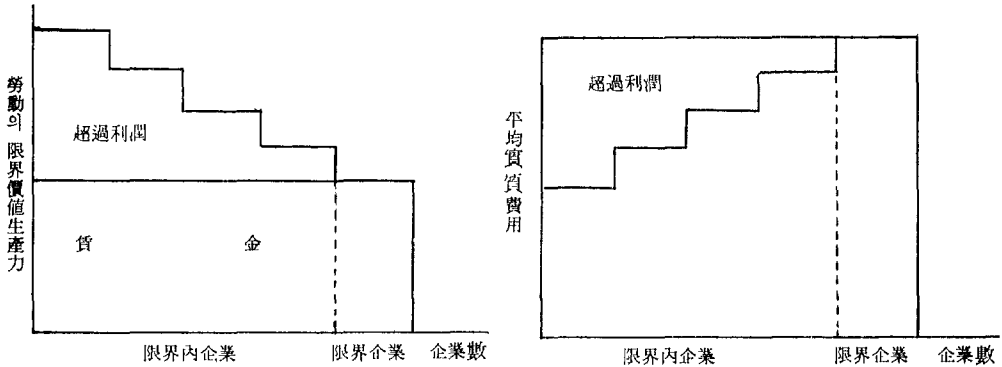
$$\text{所得(生産物의 總價格} - \text{使用된 生産手段의 總價格)} = \Sigma(\text{勞動의 限界價值生産力} \times \text{雇傭量})$$

이 成立된다 [林元澤(1982, 329項)]. 이것은 (D) 以下가 成立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③ 우리는 (11)(D)가

$$\text{超過利潤} = \text{限界內企業의 勞動의 限界價值生産力} - \text{賃金}$$

$$\text{賃金} = \text{限界企業의 勞動의 限界價值生産力}$$

$$\text{超過利潤} = \text{限界企業의 平均實質費用} - \text{限界內企業의 平均實質費用}$$



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想起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text{所得} = \Sigma(\text{勞動의 限界價値生産力} \times \text{雇傭量})$$

$$= \Sigma(\text{限界內企業의 勞動의 限界價値生産力} \times \text{雇傭量}) + \Sigma(\text{限界企業의 勞動의 限界價値生産力} \times \text{雇傭量})$$

$$= \text{超過利潤}(\text{各産業 限界內企業에 있어서의}) + \text{賃金}(\text{各産業 限界內企業} \cdot \text{限界企業에 있어서의})$$

이 된다.

즉 超過利潤은 相對的으로 優秀한 生産手段을 갖고 있는 企業의 勞動의 限界價値生産力과 相對的으로 劣惡한 勞動手段을 갖고 있는 企業의 勞動의 限界價値生産力과의 差異라는 것이다. 즉 準地代라는 것이다. 그리고 正常利潤은 賃金の 一種이라고 看做되어야 한다. 이것은 「不完全競爭」을 前提로 하는 「複數의 異質的인 實物資本」으로 構成되고 있는 集計的 生産函數를 前提함으로써만 誘導될 수 있다. ④ 그리고 (11)(A)는 賃금이 上昇되기도 超過利潤이 存在하기 위해서는 價格이 上昇되어야 한다는 것(cost push)을 나타내고 있다. 즉 우리는 支配勞動價値論·構成價値論·不等價交換理論을 採擇한다. Ricardo·Marx 그리고 新 Keynes派와 Samuelson이 내걸고 있는 投下勞動價値論·分解價値論·控除利潤理論이 옳으나 또는 Adam Smith·Malthus·Marshall 등이 내걸고 있는 支配勞動價値論·構成價値論·不等價交換理論이 옳으나를 가지고 2百年 前에 있어서와 같이, 오늘날도 兩陣營은 對決하고 있다. 그런데 이 勝敗가 日常的으로 存在하는 賃金上昇에 의한 價格上昇(cost push)을 素質의 說明히 낼 수 없는 投下勞動價値論·分解價値論·控除利潤理論의 「悲慘한 敗北」로써 끝나야 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⑤ 限界生産力의 分配理論이 支配勞動價値論·構成價値論·不等價交換理論의 基礎 위에 立脚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限界生産力의 分配理論을 採擇하고 있는 新新古典派 Samuelson이 한편에 Ricardo·Marx의 投下勞動價値論·

分解價值論・控除利潤理論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 하나의 미스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42. Mandel(1975, p.192)은 「技術地代」(technological rents)라는 概念을 使用하고 있다. 「技術地代는 超過利潤이다. 그것은 技術進步의 獨占(monopolization of technical progress)으로부터 發生된다. 즉 費用價格을 切下시키는 發見과 發明(discoveries and inventions which lower the cost-price of commodities)으로부터 發生된다.」 여기서 Mandel은 Marshall이 「準地代」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技術地代」라고 부르고 있으며, 그것이 「平均實質費用」切下에 의해서 發生된다는 極히 常識的인 事項을 設定함으로써 (Mandel은 技術進步가 品質向上 즉 需要曲線의 上方으로의 移動을 통해서 高品質・高價格을 確保시켜 준다는 또 하나의 重要한 側面을 완전히 無視하고 있기는 하지만), Marx의 剩餘價值論으로부터 완전히 脫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Marx의 剩餘價值論發展史의 自己崩壞過程을 확실히 確認한다고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III. Marx의 國際價值論

43. Marx는, 『資本論』 第1卷 第20章에 있어, 다음과 같은 國際價值論을 展開하고 있다. 「各國에는 一定의 中位の 勞動強度(Intensität der Arbeit)라는 것이 있고, …中位の 勞動強度가 國家에 따라 相異하며, 여기서는 보다 크고(hier größer) 거기서는 보다 작다(dort kleiner). 이들 國民의 平均(nationale Durchschnitt)은 하나의 段階構造를 이루고 있으며, 그 尺度單位(Maßeinheit)는 世界的 勞動의 平均單位(Durchschnittseinheit der universellen Arbeit)가 된다. 따라서 強度가 보다 더 큰 國民的 勞動(nationale Arbeit)은 強度가 보다 작은 國民的 勞動보다 같은 時間에 더 큰 價値를 生産하며, 이 價値는 보다 많은 貨幣에 의해서 表現된다. 그런데, 그 國際的 適用에 있어, 價値法則에 더 많은 修正을 加하는 것은, 보다 生産的인 國民이, 그 商品의 販賣價格을 그 價値에까지 引下하는 것을 競爭에 의해서 強制되지 않는 限, 世界市場(Weltmarkt)에 있어 보다 生産的인 國民的 勞動(produktivere nationale Arbeit)이 보다 強度가 큰 勞動으로서 計算될 수 있다는 것이다.」 「一國에 있어 資本主義的 生産이 發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程度에 있어, 거기서는 勞動의 國民的 強度와 生産性(nationale Intensität und Produktivität der Arbeit)이 國際的 水準 以上이 되고 있다. 따라서 相異한 國家에 있어, 같은 勞動時間에 生産되는 同種商品의 相異한 數量은, 不等의 國際的 價値(ungleiche internationale Wert)를 갖게 하고, 이들 價値는 여러 相異한 價格(verschiedene Preise)에 의해서, 즉 國際的 價値의 如何에 따라서 相異한 貨幣額에 의해서

表現된다.」(傍點筆者)「貨幣에 의해서 表現되는 勞動力의 等價인 名目的 勞動賃金도 第一의 國家에 있어서는 第二의 國家에 있어서보다 높을 것이다.」[Marx(pp.986-7)]

즉 Marx는 國際的 不等價交換의 原因으로서, ① 勞動生産性的 差異와 ② 賃金の 差異의 2個를 들고 있다. Mandel은 前者를, Emmanuel은 後者를, 各各 繼承發展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4. Mandel의 理論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① 「假設的인 平均」(a hypothetical average)인 「世界市場價值」(world market value)는 生産이 「假設的인 平均」인 「國際的 平均 勞動生産性」(average international level of labour productivity) 밑에서 이루어진다고 想定할 때의 投下 勞動量에 의해서 表示되며, ② 「國際的 平均 勞動生産性」보다 작은 平均 勞動 生産性을 갖는 國家가 「國民的 價值」(national value)=「國民的 生産價格」(national price of production) 以下인 「世界市場價值」에 의해서 輸出한다면 不等價交換이 行해지게 되고 「損害를 보게 된다」(suffer a loss of substance)는 것이다[Mandel(1979, pp.72-3)]. ③ 「不等價交換은 價值法則에 反對되는 것이 아니고, 價值法則의 貫徹로서의 價值移轉(a transfer of value not contrary to but in consequence of the law of value)이 된다. ④ 「利潤率의 國際的 均等化」(international equalization of the rates of profit)는 전혀 前提되지 않고, 「高 勞動生産性國」(a country with a higher level of labour productivity)과 「低 勞動生産性國」(a country with a lower level of labour productivity)만이 前提되고 있다(*ibid.* p.360).

45. Emmanuel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古典經濟學과 Marx의 勞動價值論에 立脚해서 나는 Ricardo의 國際貿易論의 基本前提에 反對한다. 均等賃金率・不均等利潤率(equal wages and unequal rates of profit) 대신에, 나는 不均等賃金率과 均等化되려고 하는 傾向을 갖는 均等利潤率의 前提(the assumption of unequal wages and of profits subject to standardization and tending to equalization)를 取한다.」[Emmanuel(1972, p.267)] 「簡單히 말하면 우리는 國際價値의 形成은 勞動價值論의 그 發展된 生産價格理論의 形態에 있어서의 하나의 特殊한 케이스라는 것을 提示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今日 가장 現實的인 可能性을 갖고 있는 前提, 즉 國際規模에 있어 資本要素는 可動的이지만 勞動要素는 不可動的이라는 前提(the assumption that the capital factor is mobile but the labour factor is immobile on the international plane) 위에서 이루어지게 된다.」(*ibid.*, pp.266-7) 「나는 두 가지 形態의 不等價交換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번의 不等價交換의 形態는, 賃金率이 같으나 資本의 有機的構成이 다를 때(when wage rates are the same but the organic compositions of capital are different) 價値의 生産價格으로의 단순한 轉形(the mere

transformation of values into prices of production)에 의해서 發生되는 경우이고, 두번째의 不等價交換의 形態는 賃金도 有機的構成도 다를 때(differences in both wages and organic compositions) 發生되는, 내가 眞正한 意味에 있어서의 不等價交換(nonequivalence in the strict sense)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形態이다. 나는 第1形態의 不等價交換을 取하지 않고 第2形態의 不等價交換을 取한다.」(ibid., p.160)

그런데 Emmanuel의 이러한 不等價交換의 二分法에 대해서, Charles Bettelheim은, 「Emmanuel은, 賃金の 不均等으로부터 發生되는 不等價交換이, 1國에 의한 他國의 直接的 搾取의 見地에서나, 各國 不均等發展의 見地에서나, 훨씬 보다 重要하다(much the more important)고 判斷했다」고 말하고, Emmanuel(1972, p.160)이 提示해 놓은 2種類의 不等價交換 사이에는 「단순한 程度의 差異」(only a difference of degree)가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46. Emmanuel(1972, p.160)의 不等價交換理論을 좀더 詳細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그의 所謂 「廣義에 있어서의 不等價交換」(unequal exchange in the broad sense)부터 보기로 하자.

〈表 1〉에 의하면 A, B兩國은 價值交換에 있어서는 $\frac{170}{170}$ 인 데 대해서, 生産價格交換에 있

〈表 1〉

國 家	K 全投下 資 本	c 消耗된 不變資本	v 可變資本	m 剩餘價值	V (c+v +m)	R (c+v)	T 利潤率 ($\frac{\sum m}{\sum K}$)	P 利 潤 (TK)	L 生産價格 (R+P)
A	240	50	60	60	170	110	33 $\frac{1}{3}$ %	80	190
B	120	50	60	60	170	110		40	150
	360	100	120	120	340	220		120	340

어서는 A國은 B國보다 비싼 190으로 販賣하고 B國은 A國보다 싼 150으로 販賣하고 있으므로 A國에게 有利하고 B國에게 不利한 不等價交換

$$\frac{170}{170} > \frac{150}{190}$$

이 成立된다는 것이다. 賃金率이 同一하나 資本의 有機的構成이 相異하다는 前提下에서, 「價値의 生産價格으로의 단순한 轉形」으로부터서만 發生되는 이 不等價交換을 Emmanuel(1972, p.160)은 「廣義에 있어서의 不等價交換」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음에는 「狹義에 있어서의 不等價交換」(unequal exchange in the narrow sense) 또는 「眞正한 意味에 있어서의 不等價交換」에 관한 Emmanuel(1972, pp.61-2)의 見解를 보면 다음과 같다. 그런데 〈表 2〉는 A國의 賃금이 B國의 賃金の 5배가 되고 資本의 有機的構成도

〈表 2〉

國 家	K	c	v	m	V	R	T	P	L
A	240	50	100	20	170	150	33 $\frac{1}{3}$ %	80	230
B	120	50	20	100	170	70		40	110
	360	100	120	120	340	220		120	340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表 1〉 〈表 2〉에 의하면

$$\frac{1}{1} > \frac{150}{190} > \frac{110}{230}$$

이라는 事實이 나타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frac{150}{190} > \frac{110}{230}$$

을 Emmanuel은 「狹義에 있어서의 不等價交換」 또는 「眞正한 意味에 있어서의 不等價交換」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는(1972, p. 61)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賃金の 不均等性(inequality of wages)이 不等價交換의 唯一한 原因(alone the cause of the inequality of exchange)라는 事實이 밝혀졌다.」 이리하여 Emmanuel은 資本의 有機的構成과 賃金率의 不均等성에 의한 不等價交換을 主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7. Mandel이 「國民的 價値」(世界에 있어서의 「個別的 價値」)와 「假設的 平均」으로서의 「世界市場價値」(世界에 있어서의 「社會的 價値」)와의 사이의 乖離에 의해서 「價値의 國際的 移轉」(international transfer of value)에 의해서, 國際的 不等價交換을 說明하려고 하고 있는 데 대해서, Emmanuel은 「價値」와 「生産價格」의 2個 概念을 使用해서 不等價交換을 說明하고 있다. Emmanuel(1972, p. 164)에 의하면, 「...生産價格은 競爭制度에 있는 內在的 要素」(an element that is immanent in the competitive system)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1972, p. 22) 다음과 같은 말도 하고 있다. 「生産價格은 利潤의 均等化를 保障할 수 있는 唯一의 機構이기 때문에 均衡價格이다」(prices of production are equilibrium prices because they are the only mechanism capable of ensuring the equalization of profits). (傍點原書) 뿐만 아니라 Emmanuel(1972, p. 200)은 「國際的 生産價格」(international price of production) = 「國際的 均衡價格」(international equilibrium price)이라는 概念까지 使用하고 있다. 한편 Mandel(1975, p. 351)은 「國民的 生産價格」이라는 것은 成立될 수 있어도 「國際的 生産價格」은 成立될 수가 없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世界市場에 있어서는 不均等利潤率이 成

立된다(no equalization of the rates of profits occurs on the world market). 즉 個個의 國民的 生産價格(national price of production)(平均利潤率)이 並存하고 있으며, 世界市場에 있어서는 特別한 方法에 의해서 相互 結合되고 있다.」 그리하여 Mandel은 「國際的 平均勞動生産性」이라는 「假設的인 平均」에 立脚한 「世界市場價值」라는 것을 造作해 내고 있다.

Mandel은 「高勞動生産性國」이 「低勞動生産性國」을 不等價交換에 의해서 搾取하고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Emmanuel은 「高賃金國」(a high-wage country)이 「低賃金國」(a low-wage country)을 不等價交換에 의해서 搾取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 Emmanuel에 있어서는 賃金은 무엇에 의해서 決定된다는 말인가. 여기서 Emmanuel (1972, p. 64)은 「體系的 獨立變數로서의 賃金」(wages, the independent variable of the system)을 내세우고 있다. (2) 그리하여 「獨立變數」로서의 「高賃金」과 「低賃金」이 介入하는 「眞正한 意味에 있어서 不等價交換」 또는 「狹義에 있어서의 不等價交換」과 그것이 介入하지 않는 「廣義에 있어서의 不等價交換」은, Bettelheim이 말하고 있는, 「程度의 差異가 아니라 質의 差異」(a difference not of degree but of quality)라고 말하고 있다[Emmanuel(1972, p. 161)].

48. Bettelheim은 「Emmanuel理論의 本質的 特色」(an essential feature of Emmanuel's thesis)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Emmanuel에 의하면, 生産要素의 <不均等的 報酬>(unequal reward of the factors)——특히 <勞動要素>의 不均等的 報酬(unequal reward of the "labour factor") 즉 勞動力에 대한 不均等的 價格(unequal prices for labor power)이 不等價交換을 發生시킨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賃金の 不均等性은 貧國에게 必然的으로 不利하게 될 수 밖에 없는 國際分業에 의한 것이다.」 [Emmanuel(1972, p. 274)]

그러나 Amin은 다음과 같은 理論을 展開하고 있다. ① 「技術革命은 새로운 形態의 不均等國際特化를 가져오게 한다(technological revolution is going to make it possible for a new type of unequal international specialization to take shape).」 [Amin(1976, p. 190)] 「技術進歩는 …資本使用이다(technical progress is… capital-using).」 「이것은 資本使用에 있어서의 集約度가 技術進歩의 程度의 條件이 된다는 것을 意味한다(this reflects an intensification in the use of capital which is the condition of a degree of technical progress).」 [Amin(1974, p. 75)] 이리하여 Amin은 「技術進歩=資本使用」의 程度가 2次大戰後 世界資本主義體系를 「中心資本主義」(central capitalism)의 諸國과 「周邊資本主義」(peripheral capitalism)의 諸國으로 「不均等國際特化」시켜 놓았다고 말하고 있다. ② 다음에 Amin(1974, p. 123)은 「中心

(2) 「賃金과 利潤은 體系的 獨立變數이고, 價格은 從屬變數이다 (dependent variables).」 [Emmanuel (1972, p. 28)]

部에 있어서의 獨占의 出現](the appearance of monopolies at the center)을 말하고, 「獨占價格은 獨占 가운데에서도 가장 絶對的인 獨占 즉 技術獨占의 價格이다」(monopoly price—the price of what is certainly the most absolute of monopolies, that of technique)[Amin(1976, p. 154)]라는 命題를 提示해 놓고 있다. ③ 그리고 「獨占의 發生이, 同一生産性인데도 불구하고 中心部에 있어서의 賃金과 周邊部에 있어서의 賃金の 格差를 擴大시킨다」(rise of monopolies that has made possible an increasing divergence between wages at the center and in the periphery for the same productivity)[Amin(1974, p. 123)]는 理論을 展開하고 있다. ④ 「帝國主義時代는 1880년부터 1945년에 이르는 期間과 1945年 以後의 두 期間(two periods)」으로 나누어진다고 하고, 2次大戰後에는, 「資本輸出에 의해서 周邊部에 近代의 生産이 確立되지만 低賃金狀態는 계속 維持되고 있는 까닭에 不等價交換이 出現된다」고 말하고 있다[Amin(1976, p. 188)]. ⑤ 「技術從屬이 不等價交換의 하나의 原因이다」(technological dependence is another aspect of unequal exchange)라는 말을 하고 있다[Amin, (1976, p. 154)].

49. Amin의 從屬理論·不等價交換理論을 要約하면 結局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技術進歩」가 「不均等國際特化」를 가져옴으로써 中心資本主義國과 周邊資本主義國의 分化를 가져 오게 했다. 中心資本主義國에 있어서는 「技術獨占」이 이루어짐으로써 高價格(Amin은 「獨占價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高賃金商品이 生産되고 있는 데 대해서, 周邊資本主義國에 있어서는 低價格低賃金商品이 生産됨으로써, 兩國 사이에는 不等價交換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Amin의 理論은 Mandel의 理論과 Emmanuel의 理論을 그 속에 包含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Marx經濟學에 있어서의 國際價值論의 最高峰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줄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도 그 理論의 妥當性を 충분히 是認해 줄 用意가 되어 있다. 그런데 그런 만큼, 우리는 그 理論에 重大한 그리고 核心的인 補完이 追加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한다. 追加補完되어야 할 理論은 바로 다름아닌 Schumpeter의 「高品質高價格」의 理論이다. 「高價格」(獨占價格) 「高賃金」이 成立되기 위해서는 「高品質高價格」이 그 前提條件으로 成立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點에 있어 Amin의 理論은 A가 되지 못하고 B밖에 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Amin의 理論에 있어서의 原誤謬가 되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Marx의 勞動一元基準交換理論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50. 우리는 위에서, Marx에 있어서의 價值論·剩餘價值論·國際價值論에 있어서의 誤謬를 指摘한 바 있지만, 마지막으로 Marx의 理論經濟學에 대한 偉대한 功獻을, Lange

(1968, p. 79)의 말을 引用함으로써 指摘해 두고 그치기로 한다. 「資本主義發展問題에 있어서의 Marx經濟學의 優越性(the superiority of Marxian economics)은 資本主義와 單純商品生産을 嚴密하게 區別하는 制度的 裝置(the exact specification of the institutional datum which distinguishes capitalism from 'einfache Warenproduktion')를 마련해 놓은 데 있다.」

한편 Lange(1968, p. 79)는 「Marx의 勞動價值論의 失敗는, 價格을 〈均衡價格〉(Ricardo의 所謂 自然價格)으로서만 (price only as equilibrium price) 取扱한 데 있다.」고 말하고 있다.

〈參 考 文 獻〉

林元澤, 『第二資本論』, 一潮閣, 1982.

_____, 「比較剩餘價值論」, 『經濟論集』, 第25卷 第1號, 1986.

Amin, S., *Accumulation on a World Scale*, 1974.

_____, *Unequal Development*, 1976.

Bucharin, N., *Die politische Ökonomie des Rentners* (2 Aufl.), 1926.

Desai, M., *Marxian Economics*, 1979.

Emmanuel, A., *Unequal Exchange*, 1972.

Engels, F., *Ludwig Feuerbach und der Ausgang der Klassischen Philosophie*, 1927.

Ferguson, C.F., *The Neoclassical Theory of Production and Distribution*, 1969.

Harcourt, G.C., *Some Cambridge Controversies in the Theory of Capital*, 1972.

Horowitz, D., *Marx and Modern Economics*, 1968.

Jevons, W.S., *The Theory of Political Economy* (4th ed.), 1911.

Lange, O., "Marxian Economics and Modern Economic Theory," in D. Horowitz, *Marx and Modern Economics*, 1968.

Lenin, V., *Materialismus und Empirio-kritizismus*, 1927.

Mandel, E., *Late Capitalism*, 1975.

Marshall, A., *Principles of Economics* (8th ed.), 1927.

Marx, K., *Das Kapital* I.

_____, *Das Kapital* III.

Mill, J.S.,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1920.

_____, *A System of Logic*, 1930.

Robinson, J., "Marx and Keynes," in D. Horowitz, *Marx and Modern Economics*, 1968.

Schumpeter, J., *Theorie der wirtschaftlichen Entwicklung* (2 Aufl.), 1926.

_____,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1934.

Sweezy, P., *The Theory of Capitalist Development*, 1942.